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MAY 3 1983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1119 1983년 4월28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hursday, April 28,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온타리오대학생들 미국학생초청

지성인의 대화

8월토론토서 5일간 강좌등 가져

토론토의 한국대학생 모임인 대학생회(KUSA)와 대학생동창회(KUSA Alumni)는 오는 8월하순 토론토에서 제1회 북미 한인대학생 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집회의 대회장인 윤주석대학생동창회장은 정태교 대학생회장등 간부진과 함께 26일 본사를 방문, 대회취지를 설명하면서 8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토론토대학교 스카보로 캠퍼스에서 열기로 계획되었다고 전했다.

토론토대학원생인 윤씨는 지난 2개월간에 걸쳐 집회를 위한 기초작업을 마쳤다면서, 이 대회의 목적은 (1)한국문화와 배경에 대한 이해, (2)동서양의 가치체계 평가, (3)정치·경제·사회·철학적인 측면에서의 한인콤뮤니티의 분석, (4)북미 한인대학생간의 친목강화에 있다고 밝혔다.

「반영: 과거·현재·미래(Reflection '83: Past·Present·Futur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한국문화역사의 참된 인식을 위한 강연, 친선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북미사회에서의 사회진출에 관한 세미나, 북미한인사회에서의 젊은이들의 역할에 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집회에는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참석하게 되며 현재까지 확정된 초청연사와 강연주제는 다음과 같다.

◉김석영박사(뉴욕 주립대학)-「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미친 영향」
◉유재신박사(토론토대학)-「한국의 전통철학과 종교」
◉이상현박사(프린스톤대학)-「이민자의 종교관」
◉고광림박사(센트랄·코네티캇주립대학)-「인간관계: 사랑과 우정」
◉전해섬박사(예일대학)-「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밖에도 8월25일 저녁 7시부터는 고광림박사의 일반교민을 위한 공개 교양강좌도 있을 예정이다.

강의외에 피크닉, 토론토시내와 근교관광, 특기자랑, 바베큐파티, 댄스파티도 곁들여질 이번 모임의 참가비는 85달러(미화 75달러)이며 숙식료는 회비에 포함된다.

대학생회와 대학생동창회는 이 집회의 취지, 프로그램, 예산등을 교민들에게 설명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얻기 위한 리셉숀을 5월5일(목) 저녁8시 한인회관에서 연다.

윤씨는 캐나다정부로부터도 이 회의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받았다면서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많은 교민이 참석해 줄것을 희망했다.

대학생회는 온타리오주내 대학 재학생으로, 대학생동창회는 온타리오내 대학졸업자나, 1년이상 대학에 적을 두었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생회와 대학생동창회 회원은 각기 200여명이다.

자유중국조종사 중공으로 탈출

자유중국의 공군조종사 1명이 지난 23일 중공으로 탈출했다.

자유중국 정부당국은 공군조종사 리·다웨이(33)가 캐나다제 U-6A 정찰기로 정찰비행중 실종됐다고 밝혔다.

한편 중공의 신화사통신은 자유중국조종사의 귀순을 보도하면서 중공 태생의 이조종사가 1백24마일 바다를 건너 대만을 탈출했다고 전했다.

60억달러 한국 올해상환외채액

한국정부가 금년 한해동안 갚아야할 외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약60억달러에 달한다고 강경식재무장관이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21일 보도했다.

강재무장관은 한국의 외채규모를 질문하는 야당의원에 이같이 답변하고 총외채액은 3백75억5천만달러이며 이중 2백35억5천만달러는 1년이상의 장기대부이고 나머지 1백40억1천만달러는 상환기일이 1년미만인 단기융자라고 덧붙였다.

10년내 처음으로 10% 선 이하

개런티·트러스트사 6개월형 모기지율 9.75%

10년내 처음으로 주택매입 단기 모기지율이 10%이하로 떨어졌다.

게런티·트라스트사(Guaranty Trust Co.)는 26일 6개월 모기지율을 0.75%내린 9.75%로 발표했다. 이는 73년7월이후 가장 낮은 이자율이다.

그러나 73년도의 몰기지율은 장기 이자율로, 당시 이자율은 보다 안정되었으며, 1년이하의 모기지는 거의 들어보지 못할 정도로 희귀했다.

게런티회사의 소비자대부담당 부사장인 레인·크레세리어스씨는 모기지이자율이 더 하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캐나다 카머스은행(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의 수석경제분석가인 벤·게스트린씨는, "이자율이 아직 바닥으로 떨어졌다고는 보지 않으며, 금년내에 적어도 1-2%가 추가로 하락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1월 5년형 모기지를 대도입한 카머스은행은 26일 5년형 모기지율을 0.25%내려 13.25%로, 1년형을 11%로 고시했다.

약2년간 5년형 모기지를 취급하지 않았던 로열뱅크도 금주 이를 재개, 이자율을 13.25%로 고시했다.

— 〈오늘의 시세〉 —

CN$1.00 = 626.50원
CN$1.00 = US81.47센트
금(런던) = $543.58
은(토론토) = $15.00/oz.

캐나다최초 비행선 처녀비행

토론토에서 나이아가라까지 관광으로 사용?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비행선 「스카이쉽 500(Skyship)」이 26일 오후 4시55분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처녀비행에 성공했다.

약 250만달러를 들여 건조된 이 비행선은 전장 50미터(165피트) 높이 20미터(65피트)의 크기에 최대시속 60노트까지 비행할 수 있다.

이날 처녀비행에서는 하단부 곤돌라에 10인승 좌석이 부착되었다.

이 비행선을 발주맡은 LTA회사는 약 90일간의 공정을 거쳐 생산했다. 이 회사는 현재 스카이쉽 600도 건립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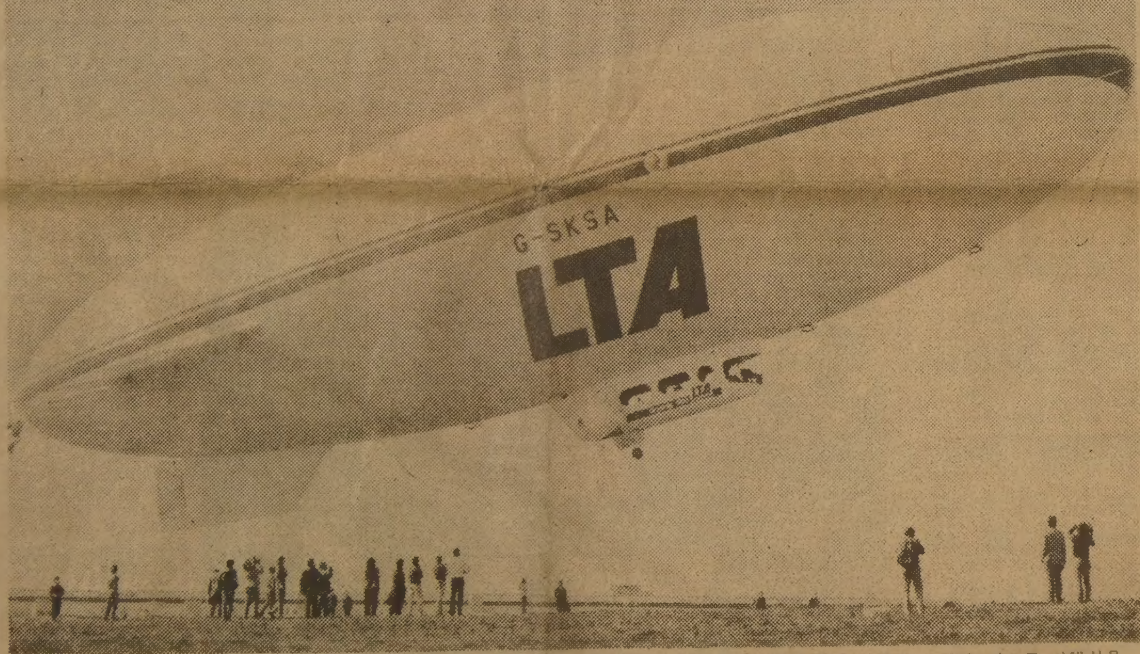
캐나다 국방관계자는 앞으로 비행선이 해안경비와 극한지역의 경비임무에도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평했다.

또한 온타리오주의 북쪽지역 담당장관은 이 비행선이 고립되어 있는 북부지역사회에 음식물, 연료, 기타 생활필수품을 공수하는데 다른 교통수단 보다도 싼 비용으로 사용되고 재난시 긴급구조용으로도 유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관광사업관계자는 최대 200명의 승객을 싣고 바시티스태디움에서 나이아가라까지의 관광용으로 곧 쓰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각 기업체에서는 이 비행선에 광고부착을 위해 문의하고 있다.

비행선은 큰 풍선형의 기구에 폴리에스터를 씌운뒤 불가연성 기체를 넣었다.



◆26일 오후 캐나다최초의 비행선 「스카이쉽 500」이 토론토 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처녀비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앞으로 비행선을 타고 나이아가라폭포를 관광할 날이 멀지 않았다.

알 림

23일밤 토론토 힐튼하버캐슬호텔에서 열린 제8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실황이 MTV(채널 47, 케이블 4) "TV한국"을 통해 3회 방영된다.

일정은 오는 5월3일 오후 5시30분, 5월4일 오전 10시, 그리고 5월8일 오전 8시에 각각 방송된다.

유학생 병역연기 27세로

외무부, 박사과정까지 마치도록

외무부는 외국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병역미필자에 대하여 국외체재기간 연령을 높이기로 결정, 각 공관에 시달했다.

지금까지는 대학별 제한 연령을 26세까지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석사, 박사학위에 관계없이 27세까지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과거규정은 석사과정을 이수하면 귀국하여 병역을 마치도록 했으나, 이번 조치는 박사과정까지 연구토록 개선한 것이다.

로렉스 란콤화장품 보너스쎄일 귀국선물
오메가시계 45% ~50% 할인
은하보석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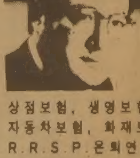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 찬 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YOUNG I. HYUN C.A.
카나다公認會計士
현영일
444-9341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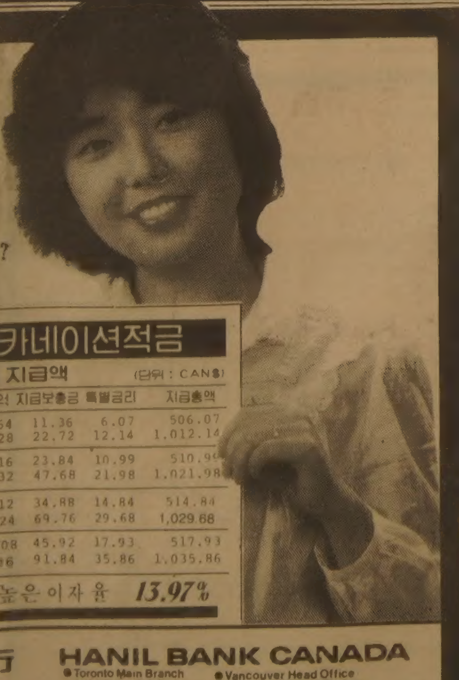
리틀·월드

빠르고 편리하게
하나+둘+셋
노력과 땀으로 이뤄논 결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증식시킬수 있을까?
◎정기예금및 적금 ◎대출업무

한일은행 카네이션적금
정기적금의 월부금과 지급액 (단위 : CAN$)

기간	계약액	월부금	납입총액	지급보충금	특별금리	지급총액
6개월	500	81.44	488.64	11.36	6.07	506.07
	1,000	162.88	977.28	22.72	12.14	1,012.14
1 년	500	39.68	476.16	23.84	10.99	510.99
	1,000	79.36	952.32	47.68	21.98	1,021.98
1년반	500	25.84	465.12	34.88	14.84	514.84
	1,000	51.68	930.24	69.76	29.68	1,029.68
2 년	500	18.92	454.08	45.92	17.93	517.93
	1,000	37.84	908.16	91.84	35.86	1,035.86

500불 이상은 500불을 기준으로 한 배수임.
높은이자율 13.97%



카나다 韓一銀行 토론토지점
HANIL BANK CANADA
● Toronto Main Branch
P.O.Box 262
6960, 1 Canadian Place
Toronto M5X 2C9
(416) 865-0456
● Vancouver Head Office
2674 Four Bental Centre
1055 Dunsmuir St. Vancouver.
(604) 681-2266

초대합니다

— YMCA창립6주년 —

희망의 새 봄, 댁내 만복을빕니다.

저희 한인YMCA는 교포사회의 지원으로 여섯해를 굳건히 자라, 오는 30일 창립6주년을 맞게 되었읍니다.

이날 저희는 유공자 표창등 조촐하면서도 알찬 행사를 갖고자 하오니 부부동반 하여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행사후 다과파티가 있읍니다.

때·1983년 4월30일(토) 하오3시
곳·한인YMCA, 931 College St. (at Dovercourt) Toron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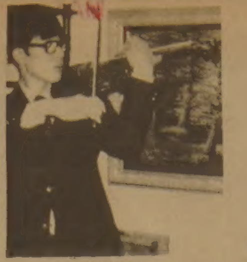
표창받는이·전택균·이석현·강찬영
조남유·천중환·전호영
김필숙

창립6주년기념행사준비위원장
김 명 규
한인YMCA총무 김 창 열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박명진독주회 호평받아

장학금으로 공부한 맹인 바이올리니스트


◆박명진군

바이올리니스트 박명진(27)씨의 독주회가 26일밤 8시 베이커우드강당(1929 Bayview Ave. 소재)에서 열렸다.

캐나다전국맹인기구(Canadian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후원으로 거행된 이날의 독주회에서 박씨는 파가니니의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2번과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협주곡 D장조를 연주했으며, 갈채를 보내는 관중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앵콜로 휘오코(Ficco)의 알레그로를 선사했다.

이번 공연의 반주는 신수명씨가 담당했다.

박씨는 어릴때 앓은 백내장으로 시력을 거의 상실했음에도 음악공부에 정진, 로얄·콘서버터리에서 장학금으로 공부했다.

연방정부 형법개정고려

음란물 판매 강력 단속위해

(오타와)연방정부는 최근 포노그라피필림(음화), 카셋, 잡지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경찰의 단속강화를 위한 법개정을 고려중이라고 마크·매퀴전 법무장관이 26일 밝혔다.

맥퀴전 장관은 현행법 아래서의 음란여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형법 159조 8항의 수정여부를 심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항목은 불법적인 성행위, 잔혹하고 혐오감을 주는 성적가해행위등을 담은 간행물과 필림에 대한 조문으로 현재의 규정으로서는 법정이나 경찰당국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형편이다.

현재 가·타학증(Sado-masochism), 강간(Rape), 노골적 성행위묘사등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어떤 규정에서 단속할 수 있는가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한편 메트로경찰은 토론토가 음란물제작산업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으며 약 600여개 이상의 점포망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법무부의 관리는 법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시민들의 판단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온타리오주를 핵금지 지역으로 선포하라"

신민당, 주의회에 건의

온타리오주 신민당의원인 리챠드·존스턴씨는 26일 퀸즈·파크(온타리오주의회)는 온타리오전역에 대한 핵동결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타리오주내에서의 각종 핵과 관련된 산업건설, 수송교통수단, 실험, 핵무기 반출입등에 대한 금지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에토비콕에 소재한 리튼시스템회사의 불법화를 주장했다.

한편 이 제안은 일부 보수당과 자유당의원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보수당의 유리·싱코위원은 서방국가들도 자국의 보호를 위한 핵동결 지역을 선포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커 피

여성에 더 해롭다

커피가 철분의 섭취를 방해하여 여성들에게 특히 해롭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버지니아의 재향군인병원 티모시·A·모크박사에 따르면 임신중에 식사때나 혹은 식사직후 커피를 마시면 철분의 50%가 흡수되지 않으며, 식사 1시간전에 마시면 22%가 흡수되지 않고 크림을 타서 마시면 특히 해롭다고 한다.

방문초청 받았다

북극탐험과학자 소련캠프로부터

(오타와)현재 북극 알파·릿지(Alpha Ridge)에 주둔하고 있는 세사본부(CESAR: 알파리지 연구를 위한 캐나다탐험대)의 과학자들이 부근에 역시 탐험 캠프를 설치하고 있는 소련과학자들로부터 방문초청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약 300Km(186마일) 떨어져 있는 소련캠프 방문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방문초청은 소련대사관으로 부터 공식접수되었다고 허친슨 동력차관이 밝혔다.

양국의 탐험본부는 거대한 얼음덩이위에 설치되어 각기 1,300Km(807마일)에 이르는 국제수역지역에서 각종 연구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번 교류에 과학적자료와 정보교류가 이루어질지는 모르나 CESAR의 한 관리는 각종 정보의 교환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련과학자들은 그들의 연구자료와 결과를 비밀에 부친채 발표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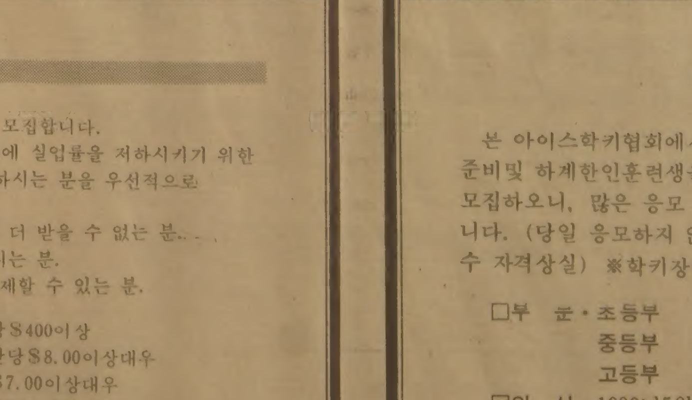
한편 CESAR의 한스·웨버 수석과학자는 "우리는 모든 정보를 문서화해서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정〉

본보 4월27일자 수요판 종교계소식란 선교100주년 기념준비성회기사 제목중 5월1일부터가 5월1일까지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한가한 로열패밀리—뉴질랜드를 방문중인 찰스황태자와 다이애너 황태자비가 뉴질랜드정부청사 앞뜰에 앉아 방금 걸음마를 시작한 아가왕자 윌리엄을 바라보고 있다.

金聖鍾 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最後의 사나이

<221>

헤로인 ⑯

열차에서 살해된 사람은 日人이었다

그는 충격을 받은듯 시뻘건 얼굴이 되어 씩씩거리다가 일어선채 말했다.

『열차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여자와 남잔데 남자는 일본인으로 밝혀졌다! 빨리 출발해!』

마인은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다. 상황실에 접수된 보고를 보고 그는 피살자들이 박두봉을 살해하려던 자들임을 직감했다.

12시 조금 전에 그는 현장에 도착했다.

그때까지 열차를 지연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가 도착했을때는 열차는 이미 시체를 내려놓고 출발하고 난 뒤였다.

시체는 역구내의 한구석에 가마니에 덮인채 놓여있었다.

마형사는 제일 먼저 두 개의 가방을 찾았다. 그러나 가방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독실칸에서 시체를 발견했을때 가방 같은것은 없었다는 보고였다.

시체가 발견된것은 열차가 대전역에 정차했을 때였다. 놀랍게도 그때까지 여자는 숨이 붙어있었다. 그녀가 피투성이 몸을 끌며 밖으로 기어나왔기 때문에 빨리 발견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복도까지 기어나와서야 마침내 숨이 끊어졌다. 담당 차장의말에 따르면 그녀는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무서운 사람…가방…가방…』

총알은 여자의 어깨와 목을 관통하고 있었다. 총알이 목을 꿰뚫은것이 치명적이 된것 같았다.

일본인 남자는 오른쪽 허벅지와 관자놀이, 그리고 가슴에 총알을 맞고 있었다.

『총소리를 듣지 못했나요?』

증언을 위해 대전역에 남아있는 담당차장을 바라보며 마인은 물었다. 차장은 잔뜩긴장해서 대답했다.

『비명소리는 들었지만 총소리는 듣지 못했읍니다.』

『비명소리를 듣고도 가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도 노크를 했었읍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남자가 아무 일 없다고 하기에 그냥 지나쳤지요.』

『그 밖에 다른 소리는?』

차장은 미간을 모으고 심각히 생각해보다가 말했다.

『네, 무슨 소리를 들은것 같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지 종잡을 수가 없었읍니다. 별로 큰소리는 아니었는데 바람 빠지는 것 같은 쉭쉭하는 소리같았읍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문을 열어보기도 뭣하고 해서 그대로 뒀지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차표가 제시되었다.

『이건 종점까지 끊은 전데 여기서 내렸읍니다. 대전에서 거둔 차표들을 모두 조사했더니 어게 나왔읍니다. 범인은 일반석 차표로 승차한 다음 독실칸에 숨어들어 범행을한 것 같습니다.』

관할구역 수사관의 말이었다.

일본인은 다행히 여권을 소지한채 죽었기 때문에 신원이 쉽게 밝혀질수 있었다. 그러나 여자는 신원을 밝힐만한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일본인의 이름은 시모다도끼야(下田時也)로 38세, 직업은 상업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마형사는 그여권을 믿지 않았다.

죽은 두사람의 인상착의는 박두봉이 진술한 것과 일치했다.

朴 男 그림

제5계절 안심과 평화

선련사주지 김삼우

◆김삼우 스님

우리는 지금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세계의 여러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세계의 큰 도회지는 범죄와 폭력의 온상처럼 되어버렸다.

U.N.기구와 세계 적십자사는 피난민 구호문제로 늘 가난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선진제국은 큰 도시의 치안문제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중류이상의 가정은 도심을 떠나 안전한 교외에 살고 있으며 따라서 저녁6시이후나 주말의 다운타운은 소개상태에 가까운 침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가지 사회적 통계자료는 인간의 잔인성과 포악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역사의 진보와 문명사회의 발전에 비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가 나아가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이에따라 인간의 잔인성과 포악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명의 혜택과 복지사회의 꿈에 도취되어 있는 현대인에게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수 없다.

인간이 잔인해지고 포악해 지는데는 두가지의 극단적인 이유가 있다.

하나는 생존본능(Life Instinct)에서 그렇게 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본능(Death Instinct) 곧 파괴적인 본능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다.

생존본능은 동물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자기의 생명(존재)이 위협을 받을때 이의 보호를 위하여 방어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도망가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잔인성과 포악성은 위협의 대상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고등동물인 인간은 생존본능이외 또 하나의 잔인하고 파괴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아무런 생리적이거나(생존위협) 경제적인(먹이를 찾는) 이유없이 자기 동류를 학대하고 살상하며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파괴적인 충동은 생존본능적인 포악성과는 모순될뿐 아니라 마침내 인류전체의 절멸과 지구사회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에 우리 모두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다른 영장류와는 달리 사랑에 대한 강열한 욕망(생식과 번식)과 아울러 파괴에 대한 강열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 모순과 결합은 여태까지의 전쟁과 평화의 역사발전론적인 차원을 넘어 이제 막바른 고비에 이르렀으며, 드디어 건전성을 진단받기 위해 수술대위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인간자신의 건전성이 의심을 받게 되면 인간이 쌓아올린 문명의 금자탑도 말할것 없이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인간과 그의 문명이 함께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명은 인간욕망의 찬란한 자기 표현이고, 현대문명은 이 인간욕망의 자기 극대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인간욕망의 자존망대(自嘲妄大)가 자기 파멸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비로소 눈뜨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의 위협인데, 사실 인간의 문명은 처음부터 인간의 파괴적인 욕망, 전쟁과 폭력에 의해 유지되어 왔고 현대문명도 막대한 군사비와 핵무기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반핵평화운동은 위기에 대한 반응과 더불어 인간자신과 문명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인간의 잔인성에 대한 반성과 평화에 대한 열망은 학문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인간과 그의 사회, 역사, 문명에 대하여 비판적인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데 대개 이들이 부딪치는 두가지의 벽이 있는데, 하나는 필요의 사회와 욕망의 사회를 우리가 비교해 볼때, 다시 말하면 의식주의 필요만 채워지면 행복할 수 있었던 선사시대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툼을 비롯 인간의 비열한 행위가 쉴새없이 전개되었던 역사시대를 비교해 볼 때 선사시대가 훨씬 건전한 사회였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공업사회에 살고 있는 인류전체가 농업사회, 전원사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것이 하나의 벽이다. 다른 하나의 벽은 인간의 파괴적인 욕망과 그 원인을 분석 구명하는데는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체제와 그 이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국가와 민족, 방위와 명예라는 타부의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것또한 인간이 도달해 있는 현재의 공동의식수준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일이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개개인의 자각을 촉구, 대중운동을 전개하는 반면, 인간자신의 부조리에 대한 깊은 반성과 통찰인 것이다.

인간의 본 바탕은 무엇인가,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때문에 존재하는 것인가, 인간에 대한 이와같은 의문은 재래 종교와 철학의 분야로서 지극히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인식의 문제로서 처리되어 왔는데, 이제 이와같은 종교적인 문제도 객관적인 과학의 문제로서 임상치료의 수술대위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문명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인간이 병들어 있다는 증세가 완연히 들어난 이상, 이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서양의 과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평화스러운 종교인 불교의 「치료법」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앓고 있는 병, 그 파괴적인 욕망을 번뇌라고 한다. 따라서 불교의 치료법이라는 것은 이 번뇌를 알고(번뇌론), 이 번뇌에서 벗어나(번뇌 대치법) 건강을 회복하고 자유로와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북미에 이주해 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말하면 자기자신을 찾아보지 않으면 안된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욕망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나 욕망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욕망을 주리고 자기를 찾아 보아야 한다. 참된 자기 곧 밝고 아름다운 자기본래의 마음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 마음이 열반심인데, 다툼아닌 평화와 안심인 것이다.

참된 자기와 마음의 평화,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으로 찾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 혼란을 겪으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직원모집

새로 설립된 김치공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실업자구제정책에 의거하여 한인사회내에 실업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계획하에서 현재 실업중이며 더이상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합니다.

(1)자 격 : 가) 현재 실업중인 분으로 UIC지원을 더 받을 수 없는 분.
나) 신체건강하며 계속 고용을 원하시는 분.
다) 한국음식(저림종류)을 맛있게 조제할 수 있는 분.

(2)모집인원 및 대우 가) 공장지배인 1명 주당$400이상
나) 재료조달사 1명 시간당$8.00이상대우
다) 저림사 3명 시간당$7.00이상대우
라) 포장사 1명 시간당$7.00이상대우
마) 배달운전사 1명 시간당$8.00이상대우

(3)등 록 처 : JANE & LAWRENCE WEST MANPOWER CENTER 또는 NEW MARKET MANPOWER CENTER

(4)문 의 처 : ☎248-6389(토론토), 또는 (1)-775-6256(봉학농장)

(5)근무예정 : 4월25일경부터

1983년 4월21일

KIM CHI CANADA LTD

공 고

본 아이스학키협회에서는 모국체전파견 준비및 하계한인훈련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당일 응모하지 않은자는 파견선수 자격상실) ※학키장비 지참 요함.

□부 문 ·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 시 · 1983년5월5일 목요일 (6 : 00 PM)

□장 소 · WEST WOOD ARENA (HWY 27×FINCH)

□연락처 · 731-0460(R) 977-6380(B) 김
792-6744 홍
622-0323 이

1983년도 아이스학키협회 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고 문 : 이영현 · 이종원
회 장 : 김종호
부 회 장 : 김영상 · 이상은
총 무 : 홍명원
섭외부장 : 공재용
이 사 장 : 우희두
부이사장 : 김현덕
총무이사 : 이우창
이사 : 우희두 · 오원균 · 김종호 · 이상은 · 김영상 · 고성호 · 김현덕 · 최명근 · 송영집 · 이호석 · 심재환 · 이우창 · 배기덕

대한체육회 카나다지부 한인 아이스학키협회

가짜냐 진짜냐 全世界파문

32년~45년까지 60卷分 "내용엔 많은 의문점이"

새로 公開된 히틀러日記

지난 주말 공개된 「히틀러의 일기」는 최근세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들중의 하나일까, 아니면 허무맹랑한 날조물에 불과할까-세계의 언론들은 요즈음 며칠동안 소위 「히틀러의 일기」란 것 때문에 뜨거운 진부논쟁을 벌이고 있다.

유태인을 대량 바다에 익사시켜야 한다는 주장등을 포함한 히틀러일기의 진부논쟁은 서독시사주간지 슈테른의 22일자 특별보도로 발단됐으며 이어 영국의 머도크계열 신문들인 더·타임스및 선데이·타임스가 24일자 신문에서 일기의 발췌문을 보도하고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일기를 진짜라고 주장하는 저명한 미국인 독일사학자와의 인터뷰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가열됐다.

히틀러의 일기를 발췌보도한 서독의 슈테른지는 입수자료가 틀림없는 히틀러의 것이라며 진본임을 주장했으나 일부 히틀러연구가들은 세계사의 중심무대에 있던 히틀러와 같은 주요인물이 측근도 모르게 어떻게 그와같은 규칙적인 기록(일기)를 남길수 있었겠느냐는등의 의문을 제기, 문제의 일기가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슈테른지가 발췌보도하고 런던의 선데이·타임스가 슈테른지에 75만달러~3백만달러의 발췌문출판권을 지불하고 게재한 히틀러의 일기는 그가 권좌에 오르기 시작한 1932년부터 그가 자살하기 며칠전인 1945년4월까지 13년동안의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새사실이 들어있다.

▲히틀러는 1941년 던커크해안에서 퇴각하는 영국군을 분쇄하지 말도록 독일군에 지시했다. 히틀러는 협상된 평화를 달성한후 세계를 영국과 독일이 양분해 갖기를 원했다.

▲히틀러는 자신의 수석참모들을 경멸, 그의 선전책임자 요셉·피벨스를 여자문제때문에 비판했으며 게슈타포국장인 하인리히·히믈러는 「속임수 잘쓰는 보잘것없는 동물사육사」라고 표현했다.

▲히틀러는 1944년7월 그를 암살하려한 독일군지도자들을 서투른 작자들이라고 지칭하며 「하! 하! 웃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슈테른지와 런던타임스등이 공개한 이같은 60권의 히틀러일기내용은 많은 의문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첫째, 나치시대의 역사가들이 주장해왔듯이 히틀러는 1933년 독일수상자리에 오른 뒤부터는 기록보관을 매우 싫어했다는 점이다.

둘째, 특히 1944년7월 그에대한 암살미수사건이 발생한뒤 신체적으로 일부 마비상태에 있을것으로 보이는 히틀러가 일기를 기록할수 있는 상태에 있었을지 극히 의문이라는 점이다.

세째, 슈테른지가 이 놀랄만한 사적자료발견을 전문가에 그 진위를 확인치않고 보도했다는 것등을 들어 석연치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자녀들에게 자연교육을!

5월매주토요일 통나무쇼 개최

메트로 토론토의 자연지역보호부의 관할기관인 코트라이트센타(Kortright Center)는 5월중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30분사이에 "특별 톱쇼(Sawmill Program)"를 갖는다.

대형 톱날을 가지고 원목을 자르는 제재소의 모습을 재현해 각종 필수품을 만드는 공정, 나무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있으며 인간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를 실물교육한다.

유명한 하키선수들의 하키스틱(hockey sticks)을 볼수도 있으며 원목을 잘라 하키스틱을 만드는 과정을 실연한다.

또한 나무꾼(lumber)들의 통나무 자르는 현장도 구경할 수 있다.

그외에도 야생화채집, 연못공부(Ponds Study), 벌들의 세계(Bee Space), 강변의 오솔길 산책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코트라이트 센타의 위치는 하이웨이 400선상의 서쪽 메이저·메켄지(Major Mackenzie Dr.) 약간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연락전화는 661-6600.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간의 입장료가 부과된다.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연재소설〉

혼돈 ⑩

글·이태준 그림·최미경

제2편 착수

「나는 떠날 거다. 그리고 남성을 짓밟고 그위에 설거다.」

나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발작한 정신병자처럼 방향도 없이 뛰었다. 어디선가

「애자씨!」

하고 부르는 덕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같았다.

지루한 여행이었다. 하늘을 날으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한번 타보았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에 도착하고 나니 다시는 비행기 여행을 하고 싶지 않도록 질려버렸다. 촌스럽지 않으려고 태연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흐르는 물위에 떠내려온 가랑잎같이 손님들의 발길을 좇아 유리창너머로 마중나온 사람들이 보이는 곳까지 왔다.

아직도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같은 멀미를 느끼며 동물원의 우리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낚시꾼 김사장을 찾아보았다. 바로 출구옆에 서있는 그는 빙글빙글 웃으며 손짓을 보내고 있었다. 서울에서 나를 만날때 대어를 낚았다고 좋아하며 웃던 모습 그대로였다.

「캐나다는 참 생긴것부터 재미가 없는 나라지요. 밋밋한 평야위에 여름에는 새파란 잔디가 깔리고, 겨울에는 지긋지긋한 눈이 깔려 있지요.」

그는 엄청나게 넓은 고속도로를 사지동물의 대이동처럼 밀려가는 자동차의 행렬 속을 누비며 중얼거렸다.

「재미 없어도 저는 넓은 곳이 좋아요. 좁은 곳에서 복작거리다 와서 그런지 우선 모든게 시원스러워 좋네요.」

「땅이야 지겹게 넓지요. 산을 구경하기가 힘드니까요.」

「나는 외국이라해서 별다른가 했더니 뭐 그렇고 그렇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민온 것을 후회하고 있는 교민들도 있으니까요.」

예상외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던 나는 도시의 모습이 한국과 거의 비슷한 것에 약간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체재기간은 다시 연장시킬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까지는 제가 책임질 수가 없지요. 나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요.」

2년이면 너무 짧다. 부를 모아 나의 야성을 쌓고 남성들을 지배하기는 너무 촉박한 기간이다. 이치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기대를 안고 토론토에 도착한 애자는…

인기가 없으면 쫓아버리고, 손님을 막 끌어들이면 연장시켜 주겠다는 다분히 타산적인 의미가 숨어있는 것같았다. 그러나 나는 거드름을 피우며 날아와 쓸만한 여자는 하나씩 하나씩 낚아다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낚시꾼 김사장 당신부터 정복하고 말거요.

당신이 나를 면접할 때 거만을 떨며 내 알몸을 심사했듯이 머지않아 나는 당신의 등위에 올라앉아 채찍을 휘두를거요.

그와 나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대로의 계획을 빈틈 없이 하고 있었고, 나는 나대로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차가 그의 집인것 같은 거창한 이층집 앞에 섰다.

나는 그의 인도를 받으며 집안으로 들어갔다.

으리으리한 가구 속에 묻혀 텔레비를 보고 있던 부인이 유들유들한 웃음을 흘리며,

「어서 와요.」

하고 거만한 인사를 차렸다. 나도,

「잘 살았소?」

하고 대꾸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지만 환심을 살 때까지는 고분고분해야 한다는 기본전략을 지키기로 했다.

여독으로 입맛이 없는 저녁을 얻어먹고 일할 때의 주의점이라고 늘어놓는 김사장의 잔소리를 한시간 가량 듣다 잠잘 방으로 안내되어 들어왔다.

방에는 항상 나와 같은 여자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것같은 침대와 간단한 화장대가 응접실의 가구와는 달리 초라하게 놓여 있었다.(계속)

감사말씀

신록이 봄을 수놓기 시작한 요즈음 교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힘입어 지난 23일 제8회 캐나다 미스코리아선발대회가 성황리에 끝났음을 감사하오며, 앞으로도 더 한층의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특히 금품등 물심양면의 협력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1983년 4월 25일

제8회 캐나다미스코리아선발대회 대회장 김명규 집행위원장 윤방현

1. 세방관광여행사(사장 유승민) : 서울왕복항공권
2. E & J 오토바디(대표 이영두) : $500
3. 영숙보석상(민영숙) : 진주목걸이 1점($500)
4. 에코시스가구점(대표 김만구) : 가구 1Set
5. Bayview Electronics(대표 김항섭) : 소니 카셋라디오($200)
6. 무나미트로피사(사장 이기훈) : "진"용 금관
7. 미도파백화점(사장 장추신) : 시계($400)
8. 블루어 안경점(사장 구진모) : 고급 프랑스제 선글라스($150)
9. 새한칼라(사장 이인덕) : 11 × 14 사진틀과 "진"독사진
10. 코리아타운번영회(회장 이부현) : 상품1점
11. 월드북 본사 : 월드북사전 1Set($100)
12. D.Y. 총판(사장 오기환) : 가주미 25Lbs. 10포
13. 동부 아카데미 (사장 김정운) : 20" PANASONIC TV 1대
14. 신세계여행사(사장 김창범) : 프로리다 왕복항공권
15. 블로아하드웨어(변의섭) : 전자제품 2점
16. [illegible]국관(나옥녀) : 100불
17. 노[illegible]오토바디(송대헌) : 100불
18. 앵[illegible]바디(송창섭) : 100불
19. PICTURE FRAME(조성호) : 액자(100불상당)
20. 남강식당(이영규) : DINNER FOR 4(100불상당)
21. 영·프라워숍([illegible]순환) : 참가자전원꽃다발
22. 거북이선물센타([illegible]순철) : 상품1점(100불상당)
23. 한밭식품(임수철) : 속내용가죽핸달구두(300불상당)
24. 이경태완인태권도장 : 블랙·벨트(유단자급)까지의 무료수련권
25. 황재필 : 현금$100
26. 동궁식당(최기주) : DINNER FOR 6(100불상당)
27. 김종조종합보험 : 상품 1점
28. 박종수도장(박종수) : 3년 유단자코스및 체육기구일체포함
29. 로마노미용실(김조자) : 화장품셋트(200불상당)
30. 캐나다한국외환은행(최승낙) : 장미적금($1,200)
31. 왕운린 의사 : 2년분 여성용 상비약
32. 무명씨 : $1,000찬조금
33. 권순근악단(권순근) : 통기타($150상당)
34. 마야미용실(김영주) : MARYKAY화장품(1세트 $100상당)
35. 토론토한인회(회장 장순채) : 진,선,미, 인기상 트로피.
36. 성균관대학교동창회(회장 권병구) : 현금 $100
37. 배재동창회(회장 안창근) : 현금 $200
38. 카나다한일은행토론토지점 : 현금 $500
39. 조흥은행연락소 : 현금 $300
40. 영구구독자 무명씨 : 현금 $200
41. Mr. Mendel Green 이민변호사협회회장 : 금일봉
42. Bloor & 케네디꽃집 : 현금 $100
43. Mr. Gus Fallis, Fallis U-Save Cash & Carry : 현금 $200
44. 현대자동차 토론토지사 : 현금 $1,000
45. Frito Lay Ltd. : 현금 $1,000
46. Silverwood Dairies, Div. of Silverwood Ind. Ltd. : 현금 $700
47. Hostess Food Products Ltd. : 현금 $500
48. Coca-Cola : (1)One year's supply of Coke Products, (2)현금$1,500
49. 박광철 : 포터블소형TV($300상당)
50. Intercity News Co. : 현금 $2,000
51. 곽정열 : ATARI VIDEO GAME($350상당)
52. Nabisco Brands Ltd. : 쵸코렛및 Mint Candy
53. 상공인협회 : 출전미녀 전원 수영복제공
54. 한국노년회(회장 조영호) : 현금 $100
55. 서준경 : 현금 $100
56. 웨이딩드레스(실비아·원) : "진" 본선진출용 야회복
57. 영리무역(이영현) : 벽시계 1점
58. Pepsi-Cola : 10K 볼펜
59. Canada Dry : Pop 50 case
60. 무명씨 4명 : 현금 $400
61. Eleanor Fulcher Model School : 3명분 수강료
62. 한인사진협회 : 소형 카메라 1점
63. 골든트로피 : 트로피 10점
64. 다우스 꽃집 : 화환, 리본
65. 제인파꽃집 : 화환
67. KOTRA : 현금 $300
68. 실업인협회 : 현금 $500
69. 정해봉 : 현금 $100
70. General Bakery : AM-FM Clock 래디오
71. Golden Craft 트로피 : 미녀8명 트로피

〈접수순〉

화환 보내주신분 : 카나다 한일은행·다우스꽃집·제인파크꽃집·실업인협회 ·볼링협회·한국관·한인총연합회·호남향우회·무역인협회·더햄실업인협회

마이크로버스 대여: 미도파백화점

집행위원 : 윤방현·남지연·이석현·강공선·이대환·이장성·장기철·이광민·홍기만·김진현·전인숙·김원동·송광호·이춘호·김현옥

심사위원: 이광민·이축길·장연탁·홍기만·임동순·Mrs.Kathleen·Cur'ry·Miss.Jennifer Jones·남지연·전인숙·이정자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1-7923 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집행부 임원회의

담배경쟁 피해 보상책

지난 4월25일 협회임원들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근간 전개되고 있는 벡커의 담배가격 경쟁문제를 중점적으로 토의하고, 이에 대한 협회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부임원은 차선겸 회장, 조기연 부회장을 비롯, 김풍수 총무, 정상우 재무, 최봉식, 강경하, 이홍규, 여문석, 심태섭, 김남원 제씨였다.

지난 4월11일에 열린 피해회원들의 간담회에서 종합된 의견에 따라 협회는 통일된 싸인을 제작하여 22일 직접 해당회원 스토아에 배부완료하였다.

불경기에 이윤 없이 거의 원가에 판매할 수 밖에 없게 된 관계회원들이 출혈을 각오하고, 이에 대항하기로 결정한 이 문제에 대하여 협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 동료회원들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장시간 숙의한 결과 다음 세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이사장단과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첫째, 앞으로 세금인상등으로 현재의 가격이 원가에 미달하는 경우, 전체회원에게 모금캠페인을 전개하여 그 손실액을 보상한다.

둘째, 칩스등 담배이외의 상품에 대한 특별프로모션을 전개함으로써 이를 보충한다.

세째, 각공급업자들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피해회원들의 손실을 카버한다.

네째, 장기전을 각오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실협의 단결력을 입증한다.

이상과 같은 대책이 강구된 후 차선겸회장은 "이번처사에 대하여 이견을 가진 회원들도 있을 줄 아나 항상 100%의 전통일은 불가능한 것이고, 강자에 눌리고 있는 약한 회원들의 출혈을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에 대항할 수 밖에 없으니,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서 아직까지 숫적으로 팽창한 협회의 힘을 내용적으로 똘똘 뭉친 협회임을 내외에 입증해 보자"고 강조하고, "일단 내디딘 결정에 해당회원들은 끝까지 버티어 주기 바라고, 협회에서는 장기전이 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피해보상을 약속하겠다"고 단언하였다.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이와 같은 대책안은 이사장단의 승인을 얻은 후 실천에 옮겨질 것이다.

SPECIAL
CIGARETTES
Large size $1.49
Small size $1.19
Carton $11.90
K.B.A.

금년도 실협골프대회

실협회원에 한하기로

8월6일(토) 상오9시 Richmond Hills Golf Club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된 제3회 실협친선골프대회는 실협회원과 공급업자들만 참가하는 가운데 실시키로 결정하였다.

일반에게 공개 실시하는 경우 예상되는 과다한 참가신청을 감안하여, 하루에 경기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제한하여 혼잡을 피하고, 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같이 결정한 것이다.

금번 대회진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임위회에서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조기연부회장, 준비위원에 강경하, 심태섭, 강공선씨를 선정하였다.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각공급업자들이 벌써부터 자진하여 상품등 협조를 자원해오고 있어 금년도의 대회도 대성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들의 참가신청 요령은 차후 발표할 예정이다.

실현단계 돌입

지연된 R.D.A.

금년 1월1일부터 실시예정으로 추진해오던 R.D.A.(잡지진열수당)는 이에 필요한 스토아별 매상보고서 획득에 대한 협회의 요청에 비협조적이었던 공급업자들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지연되어 왔었다.

지난 14일 협회는 P.D.C.의 Ed Mckim Marketing Director와 계약을 체결하고, Metro News와 관계되는 각종간행물을 위주로 한 R.D.A.를 실협을 대신해서 출판업자들로부터 받아내는 일을 위임맡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Mr. Mckim은 협회명의로 각출판업자에게 서신을 발송하고, 본격적인 R.D.A.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는데, 근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인잡지에 대해서는 당국의 진열규제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R.D.A.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Metro News에서의 보고서 매입불능으로 난관에 봉착했던 DACS회사는 Intercity News만이라도 R.D.A.를 추진할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체결 단계에 들어서 있다.

각업자들의 잇권문제로 난항을 거듭해 오던 R.D.A.문제가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에 들어섰으므로 출판업자들로부터의 회신이 도착하는 대로 풀려나가게 되었다.

한편 협회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드디어 문제의 Metro News를 움직일 수 있는 적임자를 발견함으로써 실현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그동안 참고 기다려준 회원들의 인내심에 감사하고 있다.

담배경쟁관련회원

5월2일 협회로

벡커의 담배경쟁관련 회원들의 제2차 회의가 5월2일(월) 하오 4시30분 협회사무실에서 열린다.

이번 모임에서는 싸인부착후의 반응을 검토하고, 협회가 결정한 대책을 기초로 한 관계회원의 의견청취, 그리고 이에 관련된 제반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번 회의는 관계회원들에게 중요한 회의가 되므로 전원 빠짐없이 참석해 주기 바라고, 사전 연락없이 불참하는 회원은 이번 공동결의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경찰고위층과 면담

성인잡지 판매 고발문제

성인잡지 판매죄목으로 입건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회원들이 지난 4월15일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의 의견을 기초로 협회는 첫단계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찰당국의 고위층과 면담을 하기로 결정하고 4월28일(목) 상오10시에 Human Rights Commission회의실에서 Ackroyd 경찰국장을 대신한 McCormack Staff Superintendent 외 2명과 협회간부진이 면담하고 관련된 여러가지문제를 질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피해회원들의 관심사였던

1) 수색영장 없이 점포문을 잠그고, 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변호사와 상의할 때까지 고발장에 서명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러한 고발이 시민권획득에 미치는 영향등에 관한 사전질의에 대하여 유권적 해석을 받을 것이며, 협회측에서는 확정된 지침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말단소매업자들만 고발하는 행위를 항의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차후 대책을 문의할 계획이다.

〈인터뷰〉

서준경이사장

◆서준경씨

초봄의 싸늘한 바람이 아직도 옷깃을 여미게 하는 4월의 늦은 오후, 「실협뉴스」기자는 취임 4개월에 접어든 실협이사장 서준경씨댁을 찾았다.

76년 이민후 고려대학교 동창회장 역임, 현재 토론토한인라이온스클럽회장, 한국민속예술후원회 이사장등 한인사회의 여러 단체에 폭넓게 관여하고 있는 서이사장은 부인 서문자여사와 더불어 재선(17세), 은정(14세)의 남매를 두고 있다.

이민전 한국노총의 국제부장을 역임하기도 한 서이사장이 실협의 이사회에 관여된 것은 불과 1년 남짓, 1년여만에 대실협의 이사장으로 발탁된 관운(?)이 억세게 좋은 서이사장은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서 임하는것"을 생활신조로 삼고있다고 한다.

이사장으로서의 이사회운영계획과 협회의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이사장은 "실협의 이사회는 일하는 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이사회내의 분과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능률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상호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단결된 힘을 필요시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협회의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본다. 현재 협회의 일선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희생적인 자세로 협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그 전통은 계속되리라 보기 때문이다. 하루 속히 협회원의 염원인 협동조합의 설립을 실현하여 회원에 대한 최대의 이윤보장과 그 이익을 교민사회와 캐나다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 우리는 한인인 동시에 캐네디안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마찰을 최대한으로 피하는 입장에서 협회가 운영되어야 하겠다."

현재 협회의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컴퓨터 도입은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시킴으로써 날로 방대해지는 협회의 업무를 뒷받침하고, 업무및 재정면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써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협회는 내적, 외적, 질적,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설립및 운영관리등 앞으로의 2~3년은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회원여러분의 보다 넓은 이해와 상호단결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편집실장 정상우제공〉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및 성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Enjoy Coca-Cola Trade Mark Reg.

실협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시에 실시한 추첨에서 당첨된 아래 회원들에게 코카콜라 회사에서 축하의 뜻을 표합니다.

Discount Variety .... 박찬도
Italian City Gift & Variety .... 최영길
Keat's Grocery .... 이 휘
K & K Supermarket .... 김의휘
High Park Variety .... 양정승
Lee's Variety .... 이교복
Pik Kwik Store .... 유동수
Kim's Variety .... 김정세

당첨되신 회원은 Coke Cans 13 케이스를 받으시게 됩니다.

상품진열쇼에 참석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8월의 골푸대회에서 다시 뵙겠읍니다.

Coca-Cola Ltd.
46 Overlea Boulevard, Toronto, Ontario M4H 1B6

10주년기념 『실협의 밤』 가결산서

〈수입〉

내 역	수입예상액	미수액	입금액
입장권 판매	32,000,00	1,540,00	30,460,00
복권 판매	30,820,00	--	30,820,00
Booth	23,000,00	7,000,00	16,000,00
찬조금(Supplier)	2,450,00	--	2,450,00
임원, 이사 찬조금	5,400,00	700,00	4,700,00
	$93,670,00	$9,240,00	$84,430,00

〈지출〉

내 역	지출예상액	미지급액	지급액
Hotel Dinner, Booth Rent및 부대경비	55,894,88	--	55,894,88
연예인비및 숙식비	8,598,44	--	8,598,44
기념패	1,200,00	1,200,00	--
광고비	4,440,00	--	4,440,00
경품구입(Pony자동차및 다른 경품)	9,232,12	--	9,232,12
기념사진	800,00	--	800,00
사무용품비·	546,56	256,80	289,76
준비위원회 회의비·	797,15	--	797,15
인쇄비	2,037,85	2,037,85	--
	$83,547,00	$4,494,65	$80,052,35

예상잔액 $10,123,00

당뇨병 COIN BOX 회수에 관하여

장기간 당뇨병관계 기금을 위한 모금에 성심껏 협조하여 주신 실협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월15일로 종결하고 본클럽회원들이 Coin Box를 구역별로 회수하고 있거니와, 아직 미회수중에 있는 분은 아래 해당 책임자에게 전화하여 주시면 즉시 찾아가겠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부지역(Victoria Park & Morningside)
이기천(438-6440), 이기훈(298-3 584)
나)동부외곽지역(Morningside & Oshaw a)
곽창수(483-4875)
다)중동부지역(Yonge & Victoria Park)
한효상(481-3143)
라)중서부지역(Yonge & Jane)
박영조(781-3341)
마)서부지역(Jane & Dixie)
최호영(273-7090)
바)서부외곽지역(Dixie & Burlington)
정용주(274-4303)
사)북부지역(Highway #7 & Newmarket)
전기석(895-7205)

토론토한인라이온스클럽

한국일보

골프場 山林훼손 對策추궁

內務委 "不實草地는 山林으로 환원"

◇徐動資「油價」답변 국회商工委에서 徐相喆동자부장관이 油價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가스公社 設立과정 밝혀라" "油價오르면 基金 단계축소"

商工委

국회는 23일상오 商工委와內務委를각각열고動資部와 山林廳·중앙선관위의현황보고를듣고정책질의를벌였다。

국회는 24일 각常委를 일제히 續開, 소관부처의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商工委 鄭昌和(民正), 朴完奎, 徐淸源, 許京萬, 梁在淹、柳在熙, 徐錫幸(이상民韓)、金永生의원(국민) 등은질의를통해『정부는 中東건설수출業體들이 工事代錢으로 原油를받아 국제시장에서 배럴당 1달러이상덤핑、물의를 일으키고있는 사실을 알고있는가』고 물은후『原油의 賣却物量과 금액、덤핑규모및 기업별·産油國別 공급량과 판매량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한국가스公社설립과 對인도네시아 천연液化가스(LNG) 도입 기본계약과관련、『한국가스공사는 어떤상태에서 설립과정을 밟고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어 ▲低質炭 활용방안▲備蓄炭의규모▲炭鑛大型化등에 따른 석탄산업육성대책▲原油도입체제와 관련한 수입물량, 가격、계약조건、계약일시、附帶조건▲油價引下조정이 지연된데따른精油業體의1일 이익이 얼마나고 따졌다。

徐相喆동자부장관은 답변에서『정부정책의 일환으로 中東건설 수출업체의 工事代錢으로 原油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있다』며『다만 업체자의로 현물시장에 팔아 공사대금으로 받고있고 工事代錢으로 이미받은 原油가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아 자료는 갖고있지않으나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인도네시아와 천연 액화가스 도입계약이 오는5월중 체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徐장관은 현황보고에서『앞으로 油價정책은 油價를 단순히 인하하여 內需를 자극하기보다 종합적인 경제운용의 테두리내에서 수행토록 하겠다』며『만약 原油價가 反騰할경우 기금징수액을단계적으로 내리고 關稅는기초원자재와 동일한 최저수준으로 引下하여 국내유가에주는 충격을 줄이겠다』보고했다。

內務委 廉吉正、朴有載、全炳宇(이상民正)柳寅範、柳晙相、李炯培、申宰休의원(이상 民韓)등은▲농수산부가 추진하고있는 草地조성사업과 산림청이 추진하고있는 산림육성책과의 마찰여부▲木材자급책과 不在山主방지대책▲山林契의 육성방안등을 물고『우리의 山林정책은 심는데만 급급하고 育林에는 등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李炯培의원(民韓)은『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서울로 유치한후 대기업들이 골프장과 콘도대미니엄의 건설에 선두다툼을 벌이고있다』고 지적하고 현재까지 골프장건설로 훼손된 산림면적과 草地및 농지개발로인해 山地면적이 줄어들고있는데 대한 정부측의 산림대책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孫宗鎬산림청장은『현재 산림개발기금은 90억원정도이며 金利도 6·5%인것을 농어촌후계자 양성기금 金利수준인 5·5%선으로 낮추고융자 조건도 개선하기위해 재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슐츠 中東急派

레이건 撤軍협상 돌파구목적

【워싱턴AP UPI=聯合】레이건 미대통령은 22일 레바논주둔 외군철수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짓고 난관에 빠진 자신의 중동평화안에 돌파구를 마련하기위해 조지·슐츠 미국무장관을 중동에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베이루트의 미대사관 폭파사건후 과거 어느때보다 레바논 주둔외군의 조기철수를 달성시킬 굳은결의를 갖고있다고 강조하면서 그같이 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슐츠국무장관의 중동방문은 레바논의 외군철수현상을 성공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미국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레바논국경의 안보를 보장하는 조건에서 철수협정을 체결할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건대통령은 또 중동평화협상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존재에의해 좌우되는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강력한어조로『아무도 PLO를 팔레스타인인들의 대표로 선출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우리는 PLO를 실제이상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이건대통령은 또 PLO소속 항공기조종사와 정비공 50명이 니카라과에파견됐고 PLO는 80년부터 엘살바도르의 좌익게릴라들에게 50톤의 군사장비를 제공해왔다고 말하고 PLO는 리비아와 마찬가지로 中美에서 공산진영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언론은 社會的책임 느껴야"

李文公, 언론인간담

李振羲문공장관은『언론은 국가질서와 사회체제의 유지·발전이라는 巨視的 안목에서 뉴스를 취급해야 한다』고 말하고『우리 언론은 지나친 경쟁심리를배제하고 사회적 국가적책임을통감, 이를 실천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22일저녁 서울 올림피아 호텔에서열린 언론계사장및 任員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특히 趙世衡脫走사건에 언급、『언론이 趙를 범죄행위자체보다「大盜」나「義盜」로 표현, 美化함으로써 계층의식과 貧富의식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고『이같은 보도태도는 우리의 가치체계나 이념체계에 심각한 손상을끼칠 우려가있다』고 지적했다。

IPU 서울總會논의

오늘 헬싱키理事會

국제의회연맹(IPU) 제1백32차 이사회가 24일부터 29일까지 핀란드수도 헬싱키에서 열려 오는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70차 IPU총회에 관한 제반문제를 논의할예정이다。

IPU이사회한국대표단의 한관계자가 23일국회에 보고해온바에 의하면 이번 이사회에서는 일부親北傀 국가들이 82년9월 로마총회에서 결정된 IPU총회의 서울개최에 이의를 제기하고있어 24일의 집행위원회에서 이문제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改憲說 否認 陳懿鍾 民正黨대표위원

陳懿鍾 民正대표위원은 23일 항간의 改憲說과 관련,『최근 金相浹국무총리가 국회본회의에서 밝혔듯이 통일헌법 작성작업이 論議된것으로 안다』며『적어도 정부나 民正黨안에서 시중의改憲說과 같은 발상을 할사람은 없다는것을 단언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 어제歸京

全斗煥대통령은 月城원자력발전소준공식과 洛東江河口堰기공식에 참석한뒤 23일 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歸京했다。

洛東江하구언 기공식

높이 9m 길이 1千8百90m 댐건설

釜山乙淑島를 가로지르는 洛東江하구언건설공사 기공식이 全斗煥대통령과 金宗鎬건설부장관、李喜根 산업기지개발공사 사장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일상오 釜山市西區下端洞 현장에서 거행됐다。

내외자 1천8백96억원을 투입, 오는87년까지 5년동안에걸쳐 건설되는 이 하구언은 부산 下端洞에서 을숙도를 가로질러 北區鳴旨洞등을 연결하는 것으로 높이6m 길이 1천8백90m의댐과 갑문 조절수문등을 건설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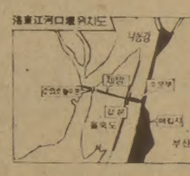
부대공사로 北區 嚴弓洞과 西區新平洞 사이에 6천7백m의 제방을새로 쌓고 하구언에서 낙동강대교까지의 우측제방 6천m도 증축한다。공사중에 생기는 2천5백45만㎥의 토사를활용 60만평 (2백만㎡)의 하천과 해면을 매립、용지도 조성하게된다。

하구언 공사가끝나면 연간 6억4천8백만톤의 각종 용수를 공급할수있게돼 연간45일정도씩 급수를 중단해야하는釜山과馬山중蔚山 溫山 昌原 鎭海등 주변도시의물사정이 좋아지게 되고 金海평야등의 농업용수공급도 원활하게 된다。

해마다 소금물피해를 받아오던 4천40㏊의 김해평야가 鹽害를벗어나 연간1만톤의 식량증산이 가능하게되고 또 하구언위에 너비18m 길이2천4백m의 4차선도로가 생겨 釜山과 서부慶南간의교통거리도10㎞이상단축할수있게된다。

이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대상지역은 釜山市 下端·新平·嚴弓·鳴旨등 8개동일대 90만평 (3백만평방m)로 선보상후시공원칙에따라 본공사착공전에 실태조사와 준비작업을완료하고 86년까지는 보상을 끝낼계획이다。

洛東江河口堰위치도



낙동강하구언은 당초 경제적측면을고려 나무섬과 진우도등을 가로막아 乙淑島남쪽끝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곳이 동양최대의 철새도래지이기때문에 자연보호를위해 북쪽끝으로 위치를 변경했다。

또 乙淑島하류에있는국내최대의 갈대자생지보호를위해 수로를 최대한 釜山쪽으로 옮기고 철새먹이와 연어 은어 뱀장어등의 어족보호를위해 2개소의 물고기이동 수로도 마련해 주기로했다。

낙동강 하구언 건설

◇ 全斗煥대통령내외가 洛東江河口堰기공을 알리는 발파 버튼을 누른뒤 발파광경을 지켜보고 있다。【崔東完기자찍음】

"水質오염·公害방지 노력을"

全대통령, 洛東江하구언 起工式致辭

【釜山=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23일『정부는 水資源을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한걸음 더나아가 水質汚染과 公害를 방지하는데 노력을 집중해 맑고 깨끗한 국토를 우리손으로 정성스럽게 다듬고 가꾸어나감으로써 세계 어느나라보다 살기좋고 복된 나라를 이룩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釜山市西區下端洞에서 거행된 洛東江河口堰 기공식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국토를 유용하게 가꾸는 노력은 국민모두가 국토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국토를 아름답게 길이 보존하려는 간절한 소망을 지니고 이를 실천할때 비로소 참다운결실을기대할수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賦存자원이 빈약한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水資源만큼은 비교적풍족한 우리의 여건에서 이 자연의 혜택을 훌수로 헛되이 흘려 보내지 않고 슬기롭게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중요한 과제』라고 지적,『이와같은 생각에서 우리는그동안 水資源의 개발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미 댐시설에 있어 세계 6위의 규모를 자랑하는위치에 올라서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 현재 건설중인 忠州多目的댐이외에도 7개의 다목적댐을 앞당겨 건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국토는 오늘의 國力의 원천일뿐아니라 우리 민족이 영원히 살아나갈 보금자리이며 이를 훌륭하게 보전해 다음세대에 물려주는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것』이라고 덧붙였다。

國內신문중 가장큰 한국일보 活字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社會漫評

"全世界서 우굴대는 소련스파이가 우리수보다 많구나…"

地平線

중공 廣東의 동물원에서 호랑이 똥을 훔치던 젊은이들이 붙잡힌 일이 있었다。중공국경을 넘어 홍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에게 호랑이 똥이 인기품목이기 때문이다。중공국경찰의 사나운 개도 호랑이 똥냄새만 맡으면 맥을 못춘다는 사실이 80년 4월 한 탈출자에 의해 발견된뒤의 일이다。▼개는 인간이 제일 먼저 가축으로 만든 동물이라고 한다。대체로 1만2천년전 석기시대의 일로 알려져있다。애초에 사냥의 길동무로 길들였다는 추측이다。그러나 산업화시대의 풍요한 사회에서는 개의 역할도 달라졌다。외로운 도시인에게 충실한 친구요、주인과 그 재산을 지켜 주는 역할을 하게됐다。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세퍼드와 푸들이 가장 많다는 것만 봐도 개의 역할을 알수 있다。▼요즘 도시범죄가 문제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개기르기가 유행이라고한다。범죄와 맞서기위해 기르는개에는 3가지가 있다。경비、호위、공격용이다。경비용의 개는 짖는게 일이다。필리스·라이트라는 미국의전문가는 슈나우체르·스나테리어같은 작은 개들을 경비용으로 권하고있다。어느 개보다도 귀가 밝은 개가 테리어라는 얘기다。▼호위용이라면 으레 세퍼드나도버만을 생각하게 마련이다。몸집이 크고、용기를 잘하는 개다。그러나 모든 개가 호위용이 될수있다고 라이트는 말한다。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이다。훈련은 반드시 주인이 전문가의도움을 받아 직접 해야된다。뿐만아니라 언제나 주인의 감시하에 있어야되고、특히 어린아이들을 조심해야된다。▼『공격용 개는 총알을 쟨 총을 식탁에 놓는것과같다』고 라이트는 경고한다。土佐犬이라는 맹수가 희생자를 내는것과같은 예를 들수있다。게다가 요즘엔 4~5백만원짜리 개를 수입해오는 바람이 불고 있다한다(한국일보23일자 11면보도)。다이어먼트에 지친「졸부」들의 철없는 짓이라고 할수있다。『개는 짖기만하면 된다』는고 싱턴의 강력반 젠트리형사는 말하고있다。진도개는고사하고 똥개만도 못한 개에 프리미엄이 붙는 세태에 웃지않을수 없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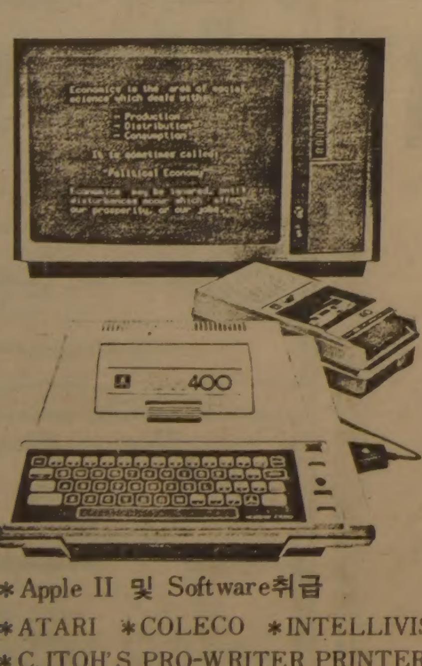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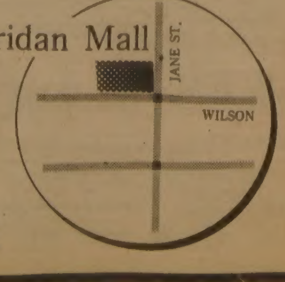


홈 컴퓨타

금번 저희가 자녀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홈 컴퓨타및 각종 부품, 컴퓨타 교육자료를 구비하고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옵니다.

◆ATARI 400 ($359) BASIC CARTRIDGE 포함. 구입시 PROGRAME RECORDER FREE
(CASSETTE PLAYER $149 LIST PRICE)
◇ATARI 800 스페샬 가격 $699 (PROGRAME KIT 포함)
*Apple II와 100% Compatible ($695짜리도 있음)
ㅁ이제 자녀교육을 위하여 홈 컴퓨타를 구입할 시기가 되었읍니다.
ㅁ홈 컴퓨타 구입에 관한 상담을 성심껏 해드리겠읍니다.
ㅁ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자 하옵니다.

*Apple II 및 Software취급
*ATARI *COLECO *INTELLIVISION
*C. ITOH'S PRO-WRITER PRINTER
*AMDEK COLOR MONITOR
*각종 교육자료및 GAME



COMPUPLACE INC ☎ : 243－0411
1700 WILSON AVE. (SHERIDAN MALL) 김성구, 홍성호

국제시장「原油덤핑」밝혀라

國会 錄音

印尼가스 5월에 導入계약 답변
都市民의 不在山主 대책은 질문

內務委

▲金容大의원(民正)질의=山林 개발특진을 위한 개발비용은 얼마나 조성 되었는가。의식개혁방안은。

▲柳晙相의원(民韓)=경제성높은 樹種을 심으려면 기존의 나무를 제거해야하는데 72%나되는 私有山主들은 樹種代替에 반발하고있는데 과감한 자금지원용의는。

▲朴有載의원(民正)=정부는 농경지 주변의 가로수정비는 도로변 경작자에게맡겨일정률이로잘라내농사피해를 막도록할용의는。

▲李炯培의원(民韓)=지금까지의 短期性綠化사업보다는 장기적인 經濟林을 심는쪽으로 산림행정을 전환할용의는。

▲廉吉正의원(民正)=우리의 산림정책을 10개년 장기적인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

▲申宰休의원(民韓)=우리의 木材 自給度는 과연 언제쯤이면 가능하다고 보는가。山은 산밑에 사는 사람들이 가꾸어야 하는데 大도시의 돈 있는 사람들이 사서 방치하는등 不在山主가 생길 우려가있다。

▲金炳宇의원(民正)=근자에 와서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기업造林가에대한 지원대책이 있으면 밝혀라。山林契 중심의 산림대책을세울 용의는없는가。

▲李龍澤의원(議政)=전국토의 70%가 산지인데 이것을 개발할 생각은 않고 해외 산림개발에만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쪽이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가。

▲孫宗鎬산림청장답변=올해의 養苗목표는 총1억 8천만本이며 이를 마을양묘10% 산림조합 양묘45% 기업양묘 45%로 배분, 조정하고 있다。

영세山主에 대해선 樹種代替자금을 보조해주고 규모가 큰 山主에게는 융자조림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융자금리를 낮추고 樹種단가를현실화 하도록하겠다。

우리의 목재자급도는 현재 15%로 8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앞으로 50년후인 2003년엔 자급도가 50%로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商工委

▲朴完奎의원(民韓)=小水力발전소를 10곳에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는데 民間공사인지 정부공사인지 內譯을밝혀라。中東건설수출 業體들이 工事代金으로받은 原油를 국제시장에서 덤핑, 말썽이 많은데 정부는 이를 얘기않고있다。건설業體중 原油로 代錢을받은 기업、국제시장에 매각한 물량과 금액、당시 통상油價보다 얼마나싼 값인지 기업별 産油國別공급량과 판매량을 밝혀라。

▲徐相喆동자부장관=정부정책의 일환으로 工事代錢으로 油類를받는것을 허용않고있다。또 국내에 반입하지않아 자료가 없으나 조사해보겠다。

▲徐清源의원(民韓)=국제시장에서 말썽이 일고 나라망신인데原油덤핑을정부가모른다니 무슨말인가。

▲李元範의원(民韓)=정부가 原油를 工事대금으로 받지말라고했다지만 金埈成부총리는 現代건설에 대금으로 原油를 받으라했더니 現代가 쉽다고거절、油公에 받으라했으나 油公은 왜비싼것을 받느냐고했다고 밝혔었다。정부와業者油公 3者가 숙의한사실을 모른다는게 말이되는가。

▲許京萬의원(民韓)=30%나되는 연탄의 熱손실을 소비단계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있는지 밝혀라。

▲徐장관답변=양해한다면서면자료를제출하겠다。

▲梁在澔의원(民韓)=한국가스公社설립과 LNG(液化가스) 기본계약의 문제인데 가스公社 사장이 임명됐느냐。公社는 어떤 상태로 설립과정을 밟고있는가。

▲徐장관=인도네시아와 LNG도입가격 협상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지난3월 중요부분에 원칙적인합의를 보았고 4월말이나 5월초 印尼서 협상팀이來韓、협상文案에 합의를 보면 5월중 도입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鄭昌和의원(民正)=低質炭 활용대책을 보고하면서 저질탄생산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는데 高質炭을 만들면 되지않는가。

▲金永生의원(국민)=83년3월말현재 備蓄炭은 얼마며 産地소비지、수입貯炭量을 밝히고 연말엔 위의 항목별 移越炭이 얼마나 될것인가。

▲許京萬의원=현재의原油도입의 구체적 조건、즉 수입물량、가격、계약日時와 기간、附帶조건을 밝혀라。국내油價인하조정이 늦었는데 1일늦는데대한 精油업체의 이익규모는、또 水力과 火力의 발전單價는。

▲徐장관=低質炭은 우리나라 석탄매장총량의 30%이상으로 選炭과정에서 품질향상을 기하기는 기술상의 제약이있다。

▲柳在熙의원(民韓)=최근 가스公社의 사장內定은 어떤경위로 나왔는가。

▲徐장관=印尼와의 도입계약협상이 끝나지 않아 가스公社설립은 그이후에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았다。현재 사장은 없으며 고문이 한사람있다。

蘇첩보선 佛근해 布陣
스파이추방이어 緊張고조

【브레스트(프랑스) AP=聯合】소련첩보선 2척이 프랑스서북지방 브레스트에 있는 프랑스의 대서양전략 함대기지부근 해역에 포진함으로써 프랑스정부가 이달초 駐佛소련대사관원과 언론인등 47명을 스파이혐의로 추방한데 뒤이어 냉각된 양국관계에 또다시 긴장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자감시장비를 갖춘 소련첩보선 AGI·GS242호(1천톤)는 지난1일 이래 브레스트해안에서 약 50km떨어진 공해상에 정박해있으며 21일에는소련소해정1척이 이에 합류했다。

이에따라 프랑스해·공군은 현재 이두척의 소련함정을 예의 감시하고있다。

이 첩보선들은 22일 상오 프랑스해군구축함 보를랭호가 보낸 무선신호를 무시、아무런 응답도 하지않았으며 브레스트소재 프랑스해군사령부는 이 소련함정들의 이같은 태도를『매우 유별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분노를표시했다。

브레스트기지에는 현재 프랑스 핵잠수함3척이 배치되어있다。

문제의 두 소련함정들은 오는85년중 이 프랑스 핵잠함들에 장비될 사정 4천km의 새로운 다탄두핵미사일의 발사시험을 탐지하기 위해 대비해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는 현재 핵미사일 발사시험을 보류하고 있다。

◇中立國 스위스가 만든 가공할 무기
스위스의 해양관계회사가 최근 개발한 고성능『원격조종신형어뢰』。이어뢰는 해저에 2년까지 배치될수 있으며 일단 유사시 5백km 밖에서 원격조종해 반경 1백km내의 목표물을 명중시킬수 있다。
【루가노(스위스) 22日 AP電送=聯合】

"엄청난 지구公害에 戰慄"
—美챌린저 宇宙人들 목격소감

【휴스턴(미텍사스주)AP=聯合】미사상두번째의 유인우주왕복선 챌린저호에 탑승했던 우주인들은 22일 5일간의 우주여행에서 지구를덮고있는 엄청난 공해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챌린저호의 처녀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지난9일귀환한 폴·웨이츠선장은 이날 카롤·보브코、스토리·머스그레이브、도널드·피터슨등 동료승무원들과 함께 휴스턴우주센터에서 가진기자회견에서『지구의 대기가 얼마나 더러워지고있는가하는 것을알고는 소름끼쳤다』고 말했다。

웨이츠선장은『불행하게도 지구는 급속하게 회색의 혹성으로 변하고 있으며 우리의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말하면서『이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스스로더럽히고있다는이야기가 아니냐』고반문했다。

"穀物협상 再開하자"
美、禁輸16개월만에 蘇에 제의

【워싱턴27日UPI=聯合】로널드·레이건美대통령은 22일 지난81년말 폴란드계엄령선포와 동시에 對蘇곡물협상을 중지한이래 16개월여만에 소련측에 곡물협상 재개를 제의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은 새로운 장기계약협상제안은 곡물공급국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한다는 미국정부의 농업정책에 따른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이제안이 폴란드사태에대한 만족의 표시가 아님을 시사했다。

지난76년에 체결된 美·蘇곡물협정에 따르면 소련은 미국으로부터 연간6백만톤의 옥수수및 밀을수입하도록 돼있는데 레이건대통령이 81년12월 폴란드사태에대한 보복조치로 對蘇곡물판매를 중지함으로써 84년10월1일만료되는 이협정의 갱신협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리비아機 직접 조사하겠다
브라질、최후통첩

【브라질리아AP·UPI=聯合】브라질 정부는 22일 니카라과 좌익정부에 보내는무기를 싣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3대의 리비아수송기가 억류된 아마존강유역정글도시 마나우스공항에 군대를 파견、수송기주변을포위하는한편 리비아정부에 이들 수송기에 실린 짐을 스스로 공개하도록 24시간의 시간여유를 주겠다고말했다。

鄭一亨박사 추도식

新民黨총재권한대행을지낸 故鄭一亨박사 1周忌추도식이23일상오서울東崇洞 흥사단본부에서 고인의 장남인 鄭大哲전의원등 유족과 尹潽善전대통령내외를 비롯한 故人의 친지등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관광공사 河大敦사장 PATA이사 被選

한국관광공사河大敦사장(사진)이 임기3년의PATA(태평양지역 관광협회) 이사로 피선됐다。

記者의 눈 — 6백만弗 사기사건

국내수출업계와 금융계는 국제수출사기사건에 휘말려 一金6백만달러를 날려 버리게됐다。

내노라하는 종합상사를 포함한 10개 수출업체、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市銀을 비롯한 8개은행이 45억원에 상당하는 6백만달러어치의 상품을 외국사기꾼에게 털린 것이다。

이번 수출사기는 다른 종류의 사기처럼 우연히 발생、피해를 본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래 사기란 남을속여 목적을 달성하되 헛점을 이용,치밀하게 사전에계획、이루어지는 법이다。

사기는 또한 도범이나 폭력범과는 달리 상당한 지능자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適法인것처럼 위장하는 것이 특징이기도하다。

이번수출사기도 들통이 나기까지는 모든게適法을 가장해서 이루어졌다。

홍콩 바이어는 국내수출업계의 병폐를 정확하게 알고있은 국내업체와 짜고 국내상사는 신용장을 다시 종합상사등 피해업체들에 팔아 넘겼다。

사기범들은 가격조건을 좋게 제시、수출상사들이 잡아채가도록 지혜를 짜냈다。

아니나 다를까。수출상사들은 수출대금도 미리 받아 사용할수있고 수출실적도 올리게되어 신용장을 사는데 혈안이되고 있는 판국에 가격조건도 좋은만큼 그신용장을 덥석 사들였다。

수출업체들은 가격조건이 왜이렇게 좋은것인지에 대해 의심을하기는 커녕 어리숙한 바이어를 만났다고 오히려 반가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있다는데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않았던것같다。

국내업체간 거래나、은행과 업체간거래에선 귀찮을정도로 꼬치꼬치 신용조사를 하면서도 처음거래하는외국바이어와은행에대해신용조사를하려들지않은사실에대해서는 업체나 은행이 모두변명의 여지가 없을것이다。

정보시대에 정보부재、목전의 이익에 급급해하고있는 업체간 과당경쟁이 수출사기를 자초했다고하겠다。신용조사 과당경쟁지양은 새삼스러운 과제가 아니다。

이번사건을 정부、은행、업계가 말만 앞세우고 실행을 하지않고있는데 대한 應報 라고 한다면 지나친표현일까。

【趙源永경제부차장대우】

社説

놀라운 貿易詐欺劇
—信用조사·再發防止에 萬全을

좀체로 생각할수없는 국제무역사기사건이 뒤늦게알려져 그렇수도있나하는 의아심과 충격을감출수 없게하고 있다。즉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몇몇 大小수출업체들이 홍콩소재 어느 유령商社의 사기에 걸려 수출을 하고도 거액의 代錢을 받지못한채 혼란과 곤경에 빠져있다는 것이다。아직 전모가 상세히 드러나지는 않은 모양이지만 속임수에 걸려든 국내업자는 10개社이고 그피해액은 1천만달러정도일 것이라고한다。

이 사기극은 작년 7월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사건의 主犯은「야신」이라는 홍콩거주 교포로 밝혀졌다。그는 사기를 목적으로 유령 수입상사를 세우고 무역거래에 필요한 수입신용장을 발행하는 유령은행까지 만든뒤 유령체의이름으로 가짜適法文件을 갖추어 우리 국내상사로부터 수입한 상품을 챙겨갖고 종적을 감췄다는 것이다。또 이런 사기행각을 공모한 國內업체관계자들이 이미 구속기소되었다는 보도도 있어 더욱 주목을 끌고있다。

세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각가지 교묘한 새 手法의 사기사건이 나오는 판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기가 국제무역계에서마저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더군다나 사기의 主犯이 교포출신이고 국내에도 연루자들이 있다고 하니 참으로 기막힌 일임에 틀림없다。

이미 우리 수사당국과 관계업자및 사기신용장을 去來(네고)한 관계은행들에 의하여 사건의 전모는 파헤쳐져 가는 모양이나 사건이 국제성을 띠고 있는 만큼 사기범소재지인 홍콩의 관계당국과도 협조의 길을 트면서 속히 그진상을 가려야할것이다。

동시에 이런 사기에 대비, 앞으로 다시는 걸리지않게 하기위한 방책을 마련토록 할일이다。구체적으로는 우선 外國輸入商社와그의뢰에 의하여 輸入信用狀을 발행하는 외국은행의 公信力을 정밀히 조사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할것이다。또 업자들스스로는 수출요청앞에 덮어놓고 幸運感을느끼는 나머지 외국에서 보내온 수입관계서류의 신빙성 다짐을 소홀히 하는일 없어야한다。

이와 관련해서 생기는 하나의 의문은 심지어 유령은행일지라도 수입신용장개설을 할수있는가하는 점이다。만약 그렇다면 이는 不安하기 짝이없는 일이다。국내 외국환은행들과 무역협회및 관계당국은 이런 헛점때문에 우리수출업자들이 봉변당하지않도록 손을 쓰기 바란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것은 이런경우、사기로인해 생긴 피해를 누가 甘受하느냐는 점이다。실제 사기를 당한 쪽에서 서류상에 不實과 虛實이 있었는지、아니면 우리수출업자들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진부를 가릴수 없던 것이었는지에 따라、피해에 대한 책임귀속문제는 결정되리라고보겠다。당국은 이런 사항에대해 大局的인 眼目으로 사건의 國內수습을 원만히 하였으면한다。하나 범인일당의색출에는 추호도 느슨함이 없어야 하겠다。앞에서 말한대로 이번국제사기사건은 홍콩거주교포가 핵심범인이고 中國人兄弟등 3人이 국내의 업자와 공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반드시 체포하여 의법조치하는것이 곧 제2의 사기를 막는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건의 경과로 보아 좀 아쉬웠던것은 국내의 관계업자들이 상호 共存정신을 발휘했더라면 피해의 상당부분을 줄일수있었겠다는 점이다。벌써 작년7월 수출이후 12월엔 그것이 사기였음을 발견한 피해업체가 있었는데도 올 2월에 다른商社들이 다시 그 사기에 걸려든 사실에서 그렇게 생각된다。

한데 현재 아직도 일부업체는 그 피해에 대한 공동대책수립노력을 外面하고 있다는 소식이다。공동이익을 위하여 商社서로가 合心하여 사태해결에 진력토록 권해두고싶다。그것이 피해의 傷處를 효과적으로 아물게 하고 수출사기에 대응하는 한 지름길일것이다。

現代社會속의 新聞
—「가장 큰 活字」로 1週日을보고

「정보산업기술의 혁명」이라는 말만큼 흔하면서 그다지 인식되지 못하고있는 말도 흔한것은 아니다。20세기를 16년 남겨놓고있는 지금 인간은 거대한 기술혁명의 문턱에 서있음을 누구나 말하고있다。그중에서도 정보산업기술의 혁명이 앞으로 인간의 생활양식을 얼마나 깊숙이 바꿔놓을 것인가를 우리 사회는 아직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할수는 없다。

텔리비전의 보급을 바탕으로해서 인공위성기술의 발전과 유리섬유의 개발、그리고 컴퓨터의눈부신 전진은 산업혁명이래의 인간의 생활양식에 또 다른 혁명을 기약하고있다。그러한 혁명은 이미 북아메리카대륙이나 서유럽에서 서서히 진행되고있다。우리 사회에서도 정보산업기술의 혁명에 뒤지지않기위해 적지않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기술의 비약에도 불구하고「활자」는 여전히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밑바탕이요、역사의 주춧돌임에 틀림없다。그림으로 보고、소리로 듣는 정보가 인간의 감각에 쉽게 와닿는다 하더라도、글자는 자극하고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현대 첨단기술이 쌓아올리고있는 정보산업기술의 눈부신 성과도 그런뜻에서 활자의 주춧돌위에 쌓아올리는 기념탑과도 같은 것이다。전문가들은 그래서 활자를 쓰는 매체가「기록성에 뛰어난 매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첨단기술시대에 우리가 신문의 사명을 자부하고、또한 이러한 사명과 기술혁명시대에 걸맞게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시도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한국일보는 지난 2월27일자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면의 일부 활자를 크게해서 독자들의 눈에 편하도록하는 시도에 앞장섰다。사설과「地平線」그리고「메아리」같은 고정난으로부터「큰활자」를 시도했었다。그뒤 지난 19일자부터 모든 지면에 큰 활자를 확대했다。활자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이 자그마치 19%나 커져、첫1주동안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활자의 혁신은 현대사회의 주춧돌이 갖는 기초적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보자는 시도의 하나다。그것은 또한 시민에게 보다 편하고、접근하기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일보가 3년 넘어 준비한 끝에 이룬 것이다。

또 한국일보는 앞서『국한혼용전산사진식자시스팀』을 개발해서 국내최초로 납활자 없이 인쇄산업을 구성할수있는 길을 열었다(한국일보 7일자 1면 社告)。첨단기술시대에 걸맞게 우리의 활자매체산업을 컴퓨터화하고、인쇄공정을 자동화하는 길이 트인것이다。

인쇄공정의 자동화와 활자의 대형화는 신문이 갖는 막중한 사명을 첨단기술시대의 독자들을 위해 보다 한단계 올려서 공급할수있게 하려는 노력의 성과다。

29년전 창간된 이래 언제나 시대의 전진에 앞장서 온 한국일보는 그러나 이러한「눈에 보이는 혁신」이 결국은 알찬내용의「결실」을 위한 과정의 하나임을 확신한다。「可讀性」이 커진만큼 내용은 보다 농축되고、기획은 보다 현실감각에 뛰어나며 내일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안목으로 시민의 새벽을 열어줄 것을 기약하고자 한다。그것이 현대사회의 주춧돌이 가야할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政局往來

自由·共和黨 왜亡했나

民正黨의 陳懿鍾대표위원은 23일 최근 국회의 對정부질문에서도 나왔던 改憲說에 대해『金相浹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한것처럼 통일헌법 작성작업이 完了된것이며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고 재차 해명。

그는『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것이지만 통일헌법작성에 적지않은 사람이 동원되었고 그작업이 완성단계에 이른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하고『적어도 정부나 民正黨에서는 市中에서 나도는 改憲說과 같은 發想을 하는사람이없다』고 설명。

그는 특히『자유당·공화당정권이 왜 망했느냐』고 반문하면서 1人長期집권이 배제된 현행헌법을 상기시키기도。그런데 民正黨은 지난번 국회질문때 鄭男의원의 원고에 改憲說에 관한 질문이 들어 있었으나 정부와 民正黨이 사전에 짜고 問答하는것으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하여 삭제했다는소식。

金부총리 출석싸고 論難

23일 국회商工委에서 야당의원들은 지난번 商工委에서 油價조정문제로 金埈成부총리의 출석요구가 霧散된점을들어 재차출석과 經科·商工연석회의를 요구해 한차례 停會끝에 裵命國위원장의「노력」약속으로 일단락。

이날 動資部보고가 끝나자金文錫의원(民韓)은『국회본회의서부총리는 油價조정에따른 안정기금을 延拂수출·댐공사에 쓸수있다고했는데 동자부장관은 시행령을 신설, 이문제를 처리한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하며 정책에 일관성이 없음을 공격。

裵위원장은 이에『이미본회의에서 다뤄진 문제로서 부총리의 출석은 동자부장관으로 불충분할때 부르는게 옳다』고 유권해석。

그러자 許京萬·徐錫宰의원(民韓)등은『그렇다면 經科·商工 연석회의를 열어 국민을납득시켜야한다』、『위원장이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요구하여 停會。

한편 이날회의 벽두 裵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자신의 정치哲學을 피력、『오늘날 商工분야의 문젯점은 과거 경제정책의 過誤때문』이라며『현황보고도중 보고내용이외에는 질의를 삼가 달라』고 하자 야당의원들이『경고의 인상이짙다』『률에맞추어 국회운영을하면 곤란하다』고異議를제기、잠시논란이벌어지기도。

"정부나 民正黨에선 改憲說과 같은 發想을 하는 사람은 없다。"

速記士없어 停會寸劇

山林廳 소관업무보고를듣고 8명의 與野의원들이 마라톤질의를 벌인 23일의 국회內務委는 異例的으로 토요일하오까지 續行하는 熱誠과는 대조적으로 週末기분탓인지 의석이 비어 한산한 운영。

이날 山林廳 보고도중 李龍澤의원(議政)은『정부는 말로만 무궁화동산조성 云云하고있다』며『충분한 苗木도 확보않고 동산을 만들겠다는것은 시집도 안간처녀보고 애낳으라는 소리』라고 養苗不實을 추궁했다。

또 廉吉正의원(民正)은『한국은 아카시아 때문에 큰 곤란을 겪게될것』이라고 말한 어느日本人의 말을 인용하고는『雜木만 키우는 산림정책을 과학적인 經濟林으로 전환할것』을 촉구。

한편 이날하오 회의에서는 속기사가 자리를 잡지 않은 가운데 孫宗鎬산림청장의 답변이 3~4분간 계속되다 이를 뒤늦게 안 書漢相위원장대리가『속기사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늦어오면 답변을 해달라』고 정회를 선포 하는 寸劇도。

書위원장대리는『속기사가없는동안에 이루어진 답변은 거듭 할 필요가 없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속기록에 올리겠다』고 통知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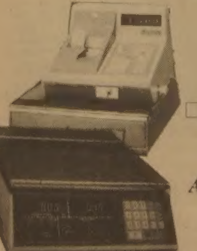
청소년문제에 뒷북만

「청소년有害업소출입억제대책」이 大邱디스코클럽화재사고가 난지 나흘만에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 의해 발표되자 중앙청주변에선『관계부처들은 뒷북만 치고있는게아니냐』는 의견이 대두。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23일『청소년문제는 지난번 행정조정실職制개정때 문교부로 넘어가고 다만 총리가 청소년대책위위원장을 맡게돼있어 이번 대책도 관계부처에서 마련해온것을 총리실명의로 발표했던것』이라고 설명해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部處간의 협조부족 때문이었음을 示唆。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短期的인데 그친데다가 火災사고가난 지난18일의 총리지시 제13호「大型事故예방및 국민질서확립을 위한 특별지시」내용보다 크게 진전된점이 없어 청소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에 바탕을 둔長期的인 종합대책마련이 아쉽다는 의견이 지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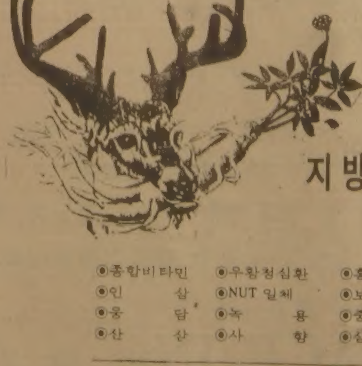
SANYO 전자계산기
전자저울



□저렴한 가격
□각종 신품과 중고품
$295로부터
AKRON CASH REGISTER
248 Browns Line, Toronto, Ontario M8W 3T4
(416) 251-7054

일본식당
舞子
HAPPY HOUR
(월요일~토요일) 오후5시~오후7시까지
초밥 5개 무료제공
주류(포도주, 맥주제외) 두잔에 한잔값만
401 BLOOR ST. E.
☎967-0922 (블루어×셀본서쪽)

아세아한약방
Health Food Center



길림산녹용, 진품웅담
원녹용, 야생녹용
특별세일
지방문의환영
⊙관절염 특효약
⊙산삼 도착
⊙자동전자약탕기
⊙종합비타민 ⊙우황청심환 ⊙홍삼 ⊙간장병
⊙인삼 ⊙NUT 일체 ⊙보약 ⊙비만증 ⊙부인병
⊙웅담 ⊙녹용 ⊙중풍 ⊙신경통 ⊙양기부족
⊙산삼 ⊙사향 ⊙심장병 ⊙고혈압 ⊙위장병
645 BLOOR ST. W. TORONTO
☎ : (416)530-0522, 530-4900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창립 7주년) $595.00
분납가능
SANYO
취급품목
한글, 영문 타자기
금고, 캐비넷, 책상,
각종 계산기, 각종도장

Tel. 532-0111
622-6754
교포 경영
김 성 수

木曜日아침에

苦痛의 4월은 가고…

젊은이여… 新綠의 계절에 가슴을 펴라

鄭喜卿 〈前 梨花女高교장〉

봄이 되면 청소년들이 더욱 간절하게 나의 思索속에 끼어드는것을 어찌하랴. 봄기운이 감돌려는 立春무렵이면 많은 청소년들이 어수선한 졸업식과 더불어 스스로가 만족스럽게 갈길을 못찾아 불안하게 서성거리는 모습이 애처롭게 가슴에 와 닿는다. 그리고 그런 2월을 지내고 나면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짐하는 「새출발」의 긴장과 흥분이 일렁거리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움직임은 봄과 더불어 더욱 確然해진다.

곧 청소년의 달인 5월이 다가서는 4월의 終章에 접어들었다. 지나간 月初에 차가운바위벼랑을 타고 떨어진 일본의 기막힌 젊은꽃봉오리의 슬픈 사연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또 무슨 怪變이런가. 「디스코 클럽 화재에 25명의 청소년이 숨지고 수십명이 重輕傷!」 이로써 올해 청소년의 달은 검은 너울을 쓰고 애곡하는 가운데 맞아야 할 것 같다. 그들의 주검이 자랑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孤魂들이 애처롭고 가엾다. 우리는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허물을 한번 깊이 있게 짚어보고 悔悟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것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靑少年의 달은 밝고 아름답고 젊고 유익한 달,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소란을 떠는 달이 아니고 진정 「그들의 달」로 제시할 수 있지않을까.

사춘기와 청소년기의 특징들을 다른 성장발달단계로 옮겨 본다면, 그것은 매우 병적인 증상들로 보일 것이다. 情緖가 불안정스럽고 변덕스러울 이만큼 감정의 起伏이 심한 것하며, 기왕에 받아들였던 모든 사물을 한번쯤은 부정하려드는 것하며, 엉뚱한 친구들과 어울려 엉뚱하게 응집력이 강한 친구관계속으로 執着해 들어가는 것하며, 性에 대한 비상한 관심과 사기 身體條件과 몸치장에 대한 안스러울만큼의 관심하며 두루 곁에서 보는 어른들의 마음을 죄게 할때가 많다. 신체적으로 용트림같은 성숙에로의 무서운 변모를 겪으면서 그와 동시에 겪어야하는 사춘기의 情緖的·정신적·사회적 변화의 현상들은 분명히 일생가운데서 경험하는 가장 맹렬한 激變의 도가니를 뚫고 나가야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울타리를

이미 어린애는 아니요, 아직 어른도 아닌 이들 청소년들의 세계와 잘 닦여진 어른들(父母·교사·기존사회전반)이 세계와의 만남은 늘 적지않은 갈등과 대결을 노출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고분고분하던 아이였는데」라든가 「함부로 다룰수 없는」위험을 느끼는 부모들의 안타까움과 조바심을 나는 수없이 목격해왔다.

날로 넓어지는 청소년들의 관심과 활동의 범위에 「바람직한 울타리」를 놓아주어야 할은 말할 나위조차없다. 바람직한 限界感覺(Sense of Boundary)은 치닫는 衝動과 규범을없기 쉬운 행동을 가늠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그 울타리가 바로 문제가된다. 우리는 청소년을 위한 편안하면서도 바람직한 울타리를 쳐주는 일에 너무 실패하고 있다. 어른들은 끝없는 抑制 아니면 放任이라는 思春期 못지않은 兩極性을 보여온게 아닐는지. 이번만해도 교육당국은 (늘 그랬듯이) 앞으로 학생의 비위행위가 있을때 교사를 문책하겠다는 反應을보였다.

문제가 터지면 보다강한 抑制로 그 고비를 넘기는 습성이 늘 청소년문제를 더욱 陰性化시키고 지하로 숨고 들어가게 했던것도 한번 반성하고 넘어가야겠다. 放任으론 더욱 안될 청소년지도이지만 抑制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憤流같은 청소년기의 진실에 골을 파주어야 하겠다.

社會病理의 거울

「시인이 아파하고 괴로와할때 그 사회는 病든 것이다」라는 수년전의 게오르규의 말이 늘 기억에 되살아난다. 나는 시인이 아니어서 그 경지는 모르겠으되 수많은 이나라의 청소년들이 그 성장과정에서 겪는 갈등상처는 병든 사회를 비춰주는 거울이아닐는지. 청소년들이 해선 안될일, 가선 안될곳, 가져서는 안될것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문제는 있으나 그런일 그런곳 그런것을 청소년들에게 은폐히 허락하는 商行爲가 곱비하게 盛行되는 사회가 너무 病弊스럽다.

그것을 어찌 일일이 다 들수 있으랴. 손발이 맞아야 일을 해낼수 있을터인데. 그 디스코클럽을 TV에서보니 건전한 어른들도 갈만한 곳은 못되는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렇다면낮을 알아보기 힘든 굴속같은 곳은 애당초 낯을 들고 옳 손님을 겨냥한 것은 아닌것 같다.

歌舞는 인생을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하고 고된 일을 치러 硬直된 심신을 풀어주는 더없이 즐거운 행동이어야한다. 굽어진 것을 펴주고, 응어리진것을 풀어주고,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주고, 挫折을 憤發로 바꾸어 줄수있는 歌舞가 빼앗아버릴 수 없는 필요한 인간행동이라면 그것을 환하게 버젓하게 신나게 할수 있는아름다운 廣場들을 허용해주어야 할것 같다.

우리사회속에 표현해야 할것을 억누르고, 밝아야 할것이 어둡고, 풀어야 할것이 맺히고, 떳떳해야 할것이 부끄럽고 등등의 病理가 너무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느낌이다. 가끔 터지는 대규모 청소년문제는 이런 사회가 않고있는 病의 거울이었다고해도 過言은 아닐성싶다. 그런 병은 곤찰,적당히 넘어가고, 「없었던 것으로 해두자」는 타협으로 넘어가고, 「좋은게 좋은것」이라는 괴상한 論理로 처리되어버려 문제는 끝내 밝히 드러내 해결되지 않는 合併症을 가지게된다.

부모의 역할은 물론 막중하다. 교사도 또한 매한가지로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나오늘날 부모와 교사처럼 나약한 존재가 또 어디 있을까.

자녀를 가졌음직한 業者가 쉽게 청소년文化의 加害者가 되는 사회,硬直된 警句같은 强力指示로만 免責하려는 「당국자」들, 우리모두의 뿌리깊은

속성이 되어버린 「적당주의」「사실외면주의」「安逸主義」「갈등도피주의」등 분명 병적인 생각들이 두루 合하여 청소년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아프고 괴로울땐 사회가 병들었음을 直感하고 敏感性을 어른들은 터득해야 할것 같다.

責任 서로 미뤄서야

어른들의 自愧는 이정도로해두자. 나는 「우리의 잘못은 전적으로 당신들 어른들 때문」이라는 責任轉嫁를 하는 비겁한 청소년들이 되지않기를 원한다. 한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는 人生歷程에 담기는 사연은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의 「實存的」(어마어마한 어휘지만) 인 決斷으로 결정되고 담겨지는것이다. 실수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실수한 일에서 헤어나지못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며 비난도 定罪도 하지 않았던 예수는 내가 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카운슬러였다. 그는 죄지은 자의 實存속에 깃든 自愛自重하는 삶에의 긍정을 인정한 것이다. 청소년들이여, 그대들의 삶, 그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때묻히고 상처 입히기에는 너무 엄숙한삶이, 혼자서 들여다보면 당신안에 고즈너기 자리잡고 있음에 틀림없다. 언제나무엇을 하든 밝은 태양아래 나와 그대들의 밝음과 젊음을 자랑하여야 할것 아닌가.

5월이 다가선다. 젊음의 달이다. 젊은 청소년들의 햇살같은, 新綠같은, 薰風같은, 感激이 일렁거리는 그런 5월을 나는 기다려본다.

「나열質問」에 「체면答辯」

國會본회의 對政府질문 6일 決算

눈길끈 改憲說…「大盜」로 화제

經濟문제、與野 연합전선으로 舌彈

○…6일간의 對政府질문을끝낸 春季임시국회는 22일부터 常委활동에 들어가 금주중 정책질의로 절정에 이를것 같다.

지난11일 院구성과 함께 문을연 이번국회는 풍성한 말의 盛饌속에서 懸案문제들을 거론하고 장관들을향해 批政을 공박했지만 전체적으로 질문·답변 모두 내용면에서 期待値에는 미치지 못했다는것이 政街의 評이다.

의원들 쪽에서 볼 경우 사실 이번 국회처럼 질문 好材가 많은 적도 드문 것 같다. 처음부터 주어져 있던 各種懸案외에 대정부질문도중에 터진 大盜 趙世衡탈주사건, 大邱디스코홀화재등 굵직한 사건이 차례로 등장했지만 여당의원들은 가급적 언급을 하지않는 눈치였고 야당의원들 역시 높은 소리에 비해 질문이 허술했다는 얘기들이다. 의원들은 각가지 문제를 나열하는것으로 체면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정부의 알맹이없는 답변으로 擧論한 것만으로 自足해야 했다.

○…정치관계 질문에서 가장눈길을 끈 대목은 改憲說. 「항간의說」임을전제로 88올림픽과 관련시킨 改憲說에 대한 정부의입장을 물으며 『후일 여하한이유로도 변하지않을 확고한 증언』을 요구한 申鉉洙의원(民韓)의 물음에 金相浹국무총리는 한마디로『事實無根』임을 강조하면서 『믿어달란』고 호소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金총리의 이간단한 답변으로 市中에 나도는 「說」이 사라질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朴完奎의원(民韓)이 改憲說을 3大不可思議라고 하는 발언에서 蔡汶植의장이 발언을 저지하여 정회소동까지 일어났던것은 개운치않은 뒷맛을 남겨주었다. 그러나 경제사회문제에 있어서는 온갖 攻防이 오가고 다양한 新造語가 나오는가하면 본도 상당히 높았다.

특히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與野가 연합전선이라도 편듯 정부의 경제정책을신랄하게 꾸짖었다. 民正黨의 裵成東의원은 『돈은 돌고돌기때문에 「돈」이라고 지어졌으나 돈줄이 동맥경화에 걸렸는가하면 정맥류와같이괴어 흐름이 막혀있는 느낌』이라고 통화정책을 비난한후 『경제운용이 늘불안하고 예측이 빗나가며 실패로 돌아가게된다』고 경제운용 자체를 공격했다. 또 李龍鎬의원도 정부의 경제정책을 「파리채정책」으로 비유하면서『파리채로 때리면 파리는잡히진않고 모두 도망가는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與黨의원으로서는 거론하기 힘든 分配문제까지 비판했다.

이에질세라 野黨의원들도 舌彈을 퍼부어 경제각료들을 곤경에몰아넣었다. 趙舜衡의원(議政)은『부동산투기억울性 울화症이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있다』며『이病은 투기로 하루아침에 致富하는 현상을 보면 맥이 풀리고 기운없고 억울하기만하고 울화가 치밀다가 의욕을상실하는것』이라고 부동산대책을 꼬집은후 金利문제에 대해 『經濟聖域이 생긴것같다』고 一針.

○…경제문제중 油價문제에 있어 與野는 다소간의 거리를 나타냈다. 裵成東의원은 정부의「3·7制」에 대해 『자세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주먹九九식으로 그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한것 아니냐』고 다그치리, 徐相喆동자부장관과 舌戰을 벌이기도 했다.

부동산투기와 같은 경제현상에 대해서는 與野가 거의 동일한 문제인식을 밝혔다. 李龍鎬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기업인보다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돈을 잘 버는 모순』을 지적하고 나서면 李爽鎔의원은 『이런 현실에서 쌓이는것은 계층간의 違和感밖에없다』고 가세했다.

이같은 與野의원들의 질책에 경제각료들의 답변은 대부분 『의견을 같이한다』는것으로 끝났고 李龍鎬의원은『정부방침이 만족스럽지는 않으나…』라고 꼬리를 달면서 동의했다.

이에 비해 野黨의원들은 『原油價상승때의 고통을 정부와 국민이 분담했듯이 이번 원유가하락의 혜택도 분담해야한다』(趙舜衡의원)『1백%를 국내油價에 반영한는것이 順理』(李爽鎔의원)라고 주장. 또 석유안정기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野黨의원들은 違法論을 제기하여 金埈成부총『최선을 다하겠다』는式으로 일관한 느낌. 金相浹국무총리는 구체적인 답변은 경제각료에게 대부분미루었으나 朴完奎의원이 작년1년동안 있었던 7가지의 정부失策을 추궁하자 『그래도 물가는 잡았다』고 답변. 金埈成부총리는 『퇴진하란』는 의원들의 공세에『시간을 더 허용해주시면 부하된 책임을 身命을다해 완수하겠다』며넘어가기도 했다.

또 항간의 風說과 아울려 관심을 모았던 朴完奎의원이 거론한 三寶證券문제는 朴의원이 나름대로의 자료를 제시하면서『三寶증권의혹사건의 전모를 밝혀란』고 요구한데 대해 姜慶植재무장관은 『疑惑』에 대해서는『아는바없다』며 『三寶와 東洋증권의 합병은 兩社의 합의에 의한것』이라고 거듭설명.

○…사회문제에서는 大盜, 大邱화재, 경찰의 폭행사등 「越尺」(?)짜리가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역시 「大盜」가 大魚였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諸葛亮의「十面埋伏之計」처럼 질문곳곳에 이사건을 숨겨두고 추궁한데 반해 與黨의원들은 원칙적인 관심표명만으로그쳐 與野의 사정을 잘설명했다.

이사건이 본회의에서 공식거론된것은 趙世衡이가

週末政局

검거된 당일인 19일의 경제부문질의에서였다. 3번째 질문자로 등단한 朴完奎의원(民韓)은『부동산투기병에 시달린는가 했더니 大盜가 특수계층의 집을 털었다하면 수억 수천만원의 금품이 쏟아져 나오는 이世態는「義의 시대」인가,「利의 시대」인가』고 격앙된 어조로 砲門을 열었다.

이어 사회분야 질문이벌어진 20일의 본회의에서金永生(국민)·金在鎬(民正)·黃山城의원(民韓)이 모두 이사건을 거론하여 大盜사건은 議政의 화제로 등장했지만 정부측은 체면용답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는방법을 사용했다. 金永生의원은『어제 趙가잡혀 다행이지만 안잡혔으면 하는것이 국민의여론』이라고 이사건이 가져온 문제점을社會病理的 차원에서 따지기 시작했다. 여당의원으로 유일하게 이사건을 언급한金在鎬의원은 『이사건은 盜犯의 탈주라는 성격을 벗어나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가져온 결과』라고 진단한후『만약에 탈주범이 흉악무도한 간첩이었다면…』이라는 迂廻질문을통해 정부측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나民韓黨의黃의원은 여성특유의 차분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등록금 5만 묘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묻기도했다.

이처럼 의원들은 大盜사건을 「盜犯脫走」라는 行刑상의 문제보다 도난당한 엄청난 피해액이 시사하는 부조리와 사회病理현상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까지 정부 답변은 金총리가 『사회기강의 해이에서 온 현상이라는 지적에 동감』이라는 간단한 답변뿐이었다.

이같은 국회의 세찬공격과정부의 무반응적 대응자세가 정면으로 격돌한것은 질문 마지막날인 21일의 본회의에서였다. 이날사회분야질문에서 柳在熙(民韓)·愼順範의원(議政)은 「大盜」사건을 상당히구체적으로 언급했다.

柳의원은 『경찰은 고문치사하고 검찰은 천하의大盜를 도망케하고 주민들이 곡괭이로 大盜를 잡은 사회가되었다』고 서론을꺼낸뒤『고위경제각료가 도난당한 재산은 도난후 공직자윤리법에의해 등록된 재산의 몇%인가』『고위경제각료의 도난액이 얼마라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믿겠는가』고 물었다.

또 愼의원은 『수억, 수천만원의 보석을 집안에 감춰놓고 사는 그사람들이 大盜인가 그것을 훔쳐낸 趙모가 大盜인가』고 물은후『巨盜가 大盜에게 당했다고 오히려 趙모를 국민들이 동정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고 개탄조로 질문했다.

이날 답변에나선 裵命仁법무장관은 지금까지의 소극적 대응자세에서 탈피,「大盜」에 대한 정부의입장을 분명히하여 이사건이 더이상 議政단상에서 논의되는것을 그치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裵장관은『한마디로 趙世衡이는 파렴치한 상습적 도범에 불과하다』면서 『趙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경제원칙에 따라 훔치는 企業절도』라고 말해 趙가 지난75년 세칭 「企業型절도」의 主犯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받았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裵장관은 『항간에서는 大盜니 義盜니 한다고 하니 세상일은 정말 모를 일이며 한심하기 짝이없다』며『더이상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李以春기자】

메아리

名犬 피스타슈

마자랭이라면 프랑스 부르봉왕조의 絶對主義완성에 크게 공헌한 정치가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교황의 특사로 파리에 왔다가 프랑스에 귀화한후 樞機卿이 되고 루이13세가 죽자 母后의 攝政을 거쳐 프롱드의 亂이 진압되고부터는 루이14세의 宰相으로 국정을 휘둘렀다.

이 마자랭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중에는 앙리4세의 庶子를 아버지로 가진 보포르公이 있었다. 용감하고 자존심이 강하여 마자랭의 출세를 마구 욕하고 다니는 그를 마자랭은 정치범으로 뱅센 감옥에 가두었다. 옥중의 보포르公은 마자랭을 저주하며 그의 얼굴을 커다랗게 그려가지고는 「세계제일의 바보녀석의 초상」이라하여 독방의벽에 걸었다.

이 보포르公이 간수한테서 피스타슈라는 개 한마리를 사들여 감방에서 길렀다. 그는 매일 이 개에게 재주를 가르쳤다. 어느날 피스타슈의 妙技를 披露하는 자리가 베풀어져 감옥소장이하 獄吏들이 죄수의 독방에 초대되었다. 개는 여러가지 솜씨를 자랑했다. 6시반을 가리키고있는 시계를 내보이자 다리를 여섯번 아래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더니 일곱번째는 위쪽으로 올린채 멈추었다. 보포르公이 이번에는『프랑스 제일의 獄吏가 누구냐』고 묻자 피스타슈는 구경꾼 사이를 세바퀴돌고나서 감옥소장앞에 와서 몸을 납작 엎드렸다. 名犬이라고 떠들썩했다.

의기양양해진 보포르公은 마침내 秘藏의 질문을 개에게 던졌다. 『피스타슈야, 세상에서 제일 큰 도둑은 어디에 사는 누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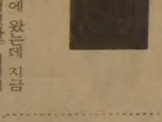
개는 이 難問을 듣자 방안을 빙빙돌다가 구경꾼들에는 눈 하나 팔지 않고 곧장 문있는데로 가더니 끙끙거리며 다리로 문짝을 긁어댔다. 보포르公은 『여러분 보십시요, 이개는 내가물은 사람이 이 방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깥으로 찾으러 나가려고합니다. 그러면개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읍니다』하고는 피스타슈를 불렀다.『왕의 비서관인 르·카뮈는 20리브르박에 안가지고 파리에 왔는데 지금은 억만장자가 되어있다. 세계제일의 도둑은 이 사람이냐?』

개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라면 財務卿의 텔리는 아들을 결혼시킬때 30만리브르의年金과 큰 저택을 주었는데 그저택이 얼마나 호화롭던지 왕궁도 이 저에 대면 오두막이라는 말이 있는데…』

개는 그래도 여전히 아니라는 시늉을 했다.

『잘 생각해봐. 혹시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큰 도둑은 이탈리아 태생의 마자랭인지 모르겠구나』



金聖佑 【編輯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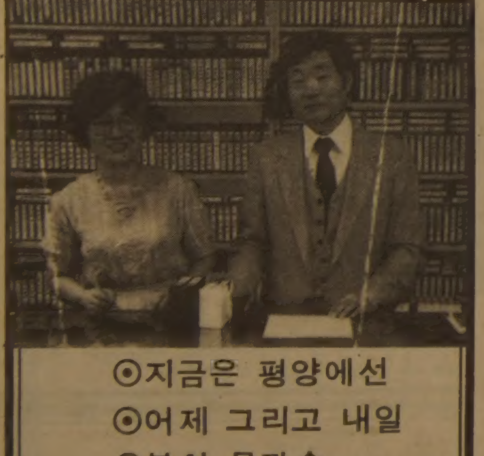
그때서야 피스타슈는 미친듯이 뛰며 고개를 몇번이나 끄떡였다. 감옥소장이하 구경꾼들은 파랗게 질린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무말도 못했다.

이 이야기는 알렉상드르·뒤마의 역사소설 「三銃士」에 나온다.

마자랭은 외교면에서 크게 수완을 발휘한 정치가였지만 蓄財에도 대가였다. 賣官賣職, 國稅不正등으로 그는 막대한 재산을 모았고 1661년 그가 죽었을때 5천만프랑이라는 巨金이 쌓여 있었다. 수많은 호위병들이둘러싼 마자랭의 宰相관저를 루이14세가 방문했을때는 어느쪽이 왕인지 모를정도로 위세가 당당했다고한다.

보포르公은 그후 뱅센감옥에서 탈옥하여 프롱드의 亂에 참가했다. 그는 자기 領地에서 나온 밀을 양식이 궁한 파리로 실어들여 「市場의 임금님」이라 불리기도 했다.

名犬 피스타슈는 보포르公이 훈련시킨 개이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개가 한마리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둑」이 반드시 우리 주위에 있어서라기보다 적어도 그런 도둑의 출현을 미연에 방지하는 番犬이 되어 줄것이다.



⊙지금은 평양에선
⊙어제 그리고 내일
⊙북청 물장수
⊙산 유 화 등 입하!
Now 1,600테잎 보유
외국테잎 다수보유!
한국비디오센터
678 BLOOR ST. W.
☎ : 532-0210 손병헌

LOEB
CASH "N" CARRY

※ 온타리오주에 10개소의 도매상(토론토에는 3개소)들이 당신의 비즈네스를 위해 성심성의껏 친절 봉사코 있읍니다.
매주 광고전단을 만들어 각 소매상에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원하시는분은 저희 도매상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스페샬품목의 광고전단을 즉시 보내드리겠읍니다.

★★★★ 당신의 M.Loeb Cash & Carry ★★★★

3 CONVENIENT TORONTO LOCATIONS

TORONTO
20 Orfus Road
Mgr. Dennis Schulz
782-8892

TORONTO
160 Evans Ave.
Mgr. Frank Arnone
255-6366

SCARBOROUGH
55 Bertrand Ave.
Mgr. Norm Carmichael
752-7292

LONDON
304 Adelaide St. S
Mgr. Ernie Kormendi
686-7590

WINDSOR
2629 McDougall St.
Mgr. Gary Villemaire
969-9610

SARNIA
135 Water St
Mgr. Keith Hood
337-2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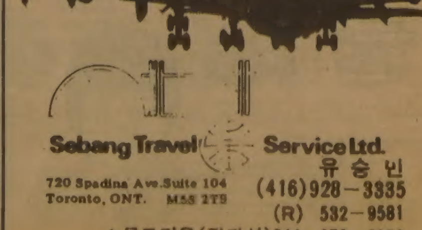
ST. CATHERINES
189 Bunting Road
Mgr. John Neufeld
684-9581

HAMILTON
256 Gage St. S
Mgr. Mark Hagan
549-7069

BRANTFORD
16 Morton Ave
Mgr. John Baker
759-4633

CHATHAM
80 William St. S.
Mgr. Peter Antuma
354-3000

IATA
세방여행사
업무안내
⊙한국·미국·캐나다·유럽등 항공권판매
⊙스키, 플로리다, 유럽등 관광패케지
⊙방문초청, 수속, 번역등 서류작성
⊙캐나다, 미국 각종대학 유학상담
⊙호텔, 렌트카예약및 기차표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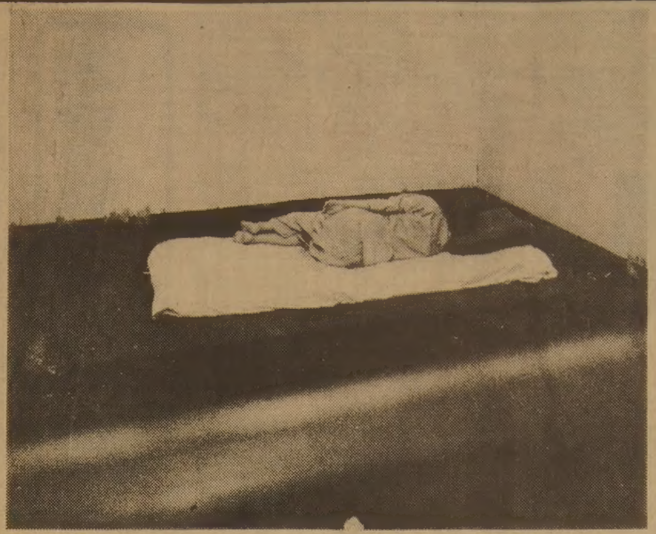
Sebang Travel Service Ltd.
720 Spadina Ave. Suite 104
Toronto, ONT. M5S 2T9
유승빈
(416)928-3335
(R) 532-9581
스몬트리올(정관성)514-672-8399
스위니펙(이영호)204-783-0007

한국일보
특집판

뚜렷한 理由없는 不安·우울·초조… 現代人의 80%가 「마음의 病」

당신의 精神健康은…

생존경쟁·복잡한 사회가 원인
출구없는 감정…신체고통으로
취미살려 日常서 보람찾도록


◇고독감이나 소외감, 또는 불안과 우울이 극도에 달하게되면 자기폐쇄를 일으킨다.

◇李丙允교수

◇趙斗英교수

◇洪剛義교수

◇金喆珪원장

『당신의 정신건강은 어떻습니까』―사회가 복잡해지고 다변화될수록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이 많아지고있다. 뚜렷한 이유없이 두통이나 소화불량을 호소하거나 하릴없이 우울해지고 불안·초조·강박관념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산업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뒤따르는 격심한 생존경쟁, 복잡한 인간관계, 가치와 윤리관의 급변등 과도기적인 사회현상이 빚어내는 심리적불안정이 분출구를 찾지 못하다가 속병으로 발전한다.

高大의대 신경정신과 李丙允교수는『우리사회가 경쟁사회·고립사회·인간소외사회·기계화사회로 치닫게되면서 전반적으로 노이로제환자가 늘어나고있는 추세』라고 분석하고『전통적인 윤리관과 가치관이 산업사회의 전도된 윤리·가치관과 맞부닥치면서 일어난 과도기적인 불안한 사회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의대 신경정신과 趙斗英교수도 현대인의 80%까지 다소나마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있으며그중 10%정도는 전문의와 상담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이로제증상은 정신병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또 노이로제환자가 정신병으로 전이될 확률도 그다지 높지않다.

그러나 성신분열증·조울증·간질등 주요 정신병도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증가추세에 있다. 국립정신병원 金喆珪원장은 이들 주요정신병 환자는1·05%에 이르며우리나라의 인구를 약 4천만명으로 볼때14만명~40만명에 이르고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은 개인의 질병으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정신질환은 사회전체의 정신적건강과 정신적 장애의 차원에서 취급해야한다. 民正黨이「정신보건법안」을 마련한것도 이같은 취지에서 이해되어야한다.

이같이 심한 증세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부닥치는정신적인 문제는 수없이 많다. 가장 많은 증상이 우울증이다. 40대~60대의 중·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삶에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불면증·두통·식욕부진·소화불량·변비·요통·현기증등을 호소한다. 한마디로 밥맛·잠자는맛·사는맛·섹스에대한 맛을 잃어버린다는것.

李丙允교수는 우울증이 전체노이로제의 절반정도는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주부와 노인층사이에 이러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는 매년1천명당 47~1백5명의 우울증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35세의 주부C씨는 공연히 울적해지고 까닭없이 눈물이 흘렀다.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고「내인생은 끝났다」는 자조감에 휩싸이곤 했다.

그러나 C씨는 겉으로 보아 유복한 가정의 성실한 주부임에 틀림없었다. 趙斗英교수는『주부가 30대 후반이 되면 자녀를 낳고 키우는 주부로서의 1차적인 직분이 끝나 사랑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빠져 우울증이 생겨난다』고 분석하고『나는 무엇이냐』는 자신의 實體에 대한 반문이 우울증을 더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때에는『무엇보다도 취미나 레저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趙교수는 처방했다.

이러한 노이로제증상은 정상인과 구별하기가 매우 힘들다. 얼마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판정될 따름이다.

강박성 노이로제는 교육·재산정도가 높은 중산층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어리석은 생각인줄 알면서도 몇번씩이나 문을 잠갔는지 확인하거나 자기암시에 따라 전주에 손을 안대면 죽는다는 생각에사로잡히곤 하는 증상이다.

趙斗英교수는『무의식에 깊숙이 자리잡은 공격적이고 성적인 충동이 의식세계에 떠오르면서 이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소한도의 강박증은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꼭 필요하다. 金喆珪원장은『그 시대 그 사회에 알맞게 살아가는것이 정상』이라면『지나쳐도 병이고 부족해도 병이므로 中庸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직장인에게 많은 증상은 불안노이로제. 30대초반의 직장인 L씨는 직장이 끝나기만하면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식은땀이 흐른다. 안정제를 복용하면 바로멈추지만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한다.

또 요즘에는 병원을 순례하며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정밀검사를 해보아도, 아무런 이상이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우겨대는 것이다. 趙斗英교수는『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건강에대한 관심이높아지면서 자기몸에 대한 애착은 심해졌으나 세상과의 도전에서실패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뚫고나갈수없을때 이같은 증상이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노이로제증상은 신체의 이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많다. 감정적인 고통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않고 직접 신체적인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

·이러한 증상을「신체 화장애」라고 부른다. 가장 많은것이 두통, 진통제가 가장많이 팔리는것도 이 이유중의하나다. 근육통이나 신경통, 또는 위산과다증과 십이지장궤양·위궤양등도 대부분 정신적인 이유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李丙允교수는『이런 증상은 치료약으로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지적, 『약을 잘못 사용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체의 이상때문에 내과나 외과등 다른분야에서 치료를 받다가 마지막에는 정신과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의들은 입을 모았다.

청소년기는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서울대의대소아정신과 洪剛義교수는『청소년의 4분의 1정도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 『성인정신병이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흔한 증상이 불안과 우울증이며 심한 경우 자살로까지 몰고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험에 대한 강박과 불안이 심해 심리적인 발달과정이 늦어진다. 洪剛義교수는『밤은 꼬박 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교육제도와 입시제도의 개혁으로 청소년시절에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을 포괄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이로제의 원인은 「갈등」이다. 그러나 어느 사회건 갈등이 없는곳은 없다. 인류사회가 있는한 감정상의 갈등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조절해나가느냐가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지름길이다. 李丙允교수는『마음의 여유를 갖고 각종 스트레스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기취향에 따라 취미나 레저를 즐기고 일상생활에서 보람을 찾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것이다.

【金周彦기자】

기분변화잦고 시간·날자 착각… 人生이 허무해져

◇도시의 각종 스트레스는 노이로제의 원인이된다. 러시아워에 시내버스를 타려고 몸부림치는것도 가장큰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가장 흔한「현대병」으로 알려진 노이로제는 일상생활의 끊임없는자극에 의해 일어난다. 한연구에 따르면 원인이나 증세에 따라 종류를 2백여가지로분류할만큼 복잡하다. 현대사회에서 20~80%의 사람들은 다소나마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빠져있으며 정신과의사와 상담을 필요로하는 경우도 10%에 이른다고 趙斗英교수는 지적했다.

그러나 노이로제증상은 언뜻 정상인과 비교하기 어렵다. 전문의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정상인과 별다른점은 없다고 한다.

자기診斷法

노이로제증상은 외견적인면, 대화하는 과정, 자신의 기분에 따라 판가름할수 있다고 金喆珪원장은설명했다.

외견적인 모습에서 보면,항상 안절부절못하며 불안정한 상태에빠져있으며 안색이 좋지않고 남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한다. 또 눈초리가매섭게 찢기가 서며손가락이 떨리기도 한다. 옷매무시가 갑자기 꾀죄죄하게 보이며 컵을 떨어뜨린다든가 물건을 뒤엎는 것을 반복한다.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제주장만 강조하고 상대방의 말은 듣지않으며 시간과 날짜에 대한 착각이 심하다. 40대이후 남의 이름을 곧잘 잊고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며 날짜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일단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다른 특징으로는 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자주하며 말수가 적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룸시 의심이 많아 남을 믿지 않으며 지나치게공격하려든다.술에 취했을 때처럼 허가 잘 돌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기분을 돌아볼 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할 것같은 상태가 지속되며 쾌활해졌다가 우울해지는등 기분의 파고가 심해진다. 사소한 일, 즉 자물쇠를 잠그지 않았다든가, 시간이 틀리지않을까등에 마음이쓰여 잊으려해도할수록 도리어강하게생각되어지거나 반대로 하늘에라도 오른 것처럼 위대하게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이밖에 정신집중이 불가능하며 신체의 이곳저곳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일을 하면 머리가 무겁게 느껴진다. 또 절망감·소외감·패배감등에 휩싸여 인생의 덧없음을 느낀다.

濫用하면 부작용 더 커…정신·肝장애에 失明우려도

작가 S씨는 머리가 아플 때마다 판피린이라는 물약을 복용해왔다. 이제는 매일 2~3병을 먹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됐다. 책상서랍속에는 꼭 1박스의 물약이 있어야만 안심할 정도다.

정신질환의 원인이 생화학적으로 규명되면서 정신질환의 치료에 약물이 이용되고 있지만, 진통제·각성제·안정제등의 남용과 오용으로 오히려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李丙允교수는『이들 약물을 사용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습관화될 우려가 있으며 오히려 정신기능을 떨어뜨릴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약물중독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지만 약물의 남용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는 지적.

藥物사용

실제로 한꺼번에 10~11알의 진통제를 먹어야만 효과가 있을 만큼 상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있다.

수면제는 일종의 신경안정제로 뇌의 강한 흥분상태를 진정시킨다. 그러나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정신이 흐릿해지면서 정신기능을 지연시킨다. 또 간기능의 장해를 가져오고 망막의 변성을 일으켜 실명할 우려도 있다고 金喆珪원장은 설명했다.

수험생들이 자주 복용하는 잠안오는약은 일종의 각성제다. 洪剛義교수는『공부라는 지상과제 때문에 각성제를 복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가고있다』고 지적했다. 각성제의 해독은 매우 심해 만성중독이 되면 정신분열증과 비슷한 망상환각증을 일으킬 수 있다.

걸핏하면 진통제를 함부로 먹는 사람도 많다. 진통제를 계속 복용할 경우, 뇌속에서 나오는 진정작용을 가진 물질의 생성을 억제시켜 중독을 일으킨다.

李교수는『판피린같은 물약은 각성제·해열제·진통제가 혼합되어 제조된 것』이라고 지적하고『이러한 약물은 반드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소화제·신경통약등도 많이 쓰인다. 이들 약은 증상을 약간 낮게 해줄 수는 있으나 원인치료는 되지 않는다. 소화기계질환이나 신경통등은 정신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을 먹은 뒤에도 또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정신적인 원인치료를 받아야한다고 李교수는 강조했다. 이같은 약도 계속 복용할」때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

생활守則

응어리 풀어줄 자기시간 갖고 즐거움 나눌 人間관계도 중요 충분한 수면…生活에 리듬줘야

정신병환자는 자기는 환자라고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당신은 환자입니다」라는 말을 듣고싶어한다. 아무 신체의 이상이 없어도 의사가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해줄 때까지 무작정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호소한다.

金喆珪원장은『노이로제의 바탕은 커다란 욕망』이라고 말하고『무엇보다도 욕심을 버리는 게 가장최선의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노이로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외부의 온갖 자극에 잘못 적응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일어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평소에 안온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한다. 李丙允교수는 정신건강을 위한「5대수칙」을 지키도록권유한다.

첫째가「보람을 갖고 살자」는 것. 자그마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껴본다.사소한 일에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보람있는 일을 다양화시키고 질적인 깊이를 가질 수 있으면 더욱 좋다.

둘째는「사람을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이다.친구들이나 사회 속에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같이웃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관계를 나눠야한다는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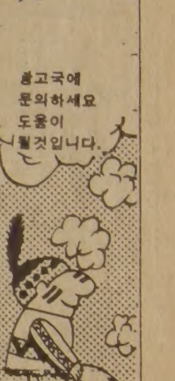
세째「즐거움을 스스로 찾아야한다」사회는 조직화되면서 증오라는 감정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한정된 틀에박힌 공간을 벗어나 자기성격이 맞는 대로 웃을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한다는 것.야외에 나가 즐기면 그만큼 응어리진 감정을 풀어낼 수 있다.

「생활의 리듬을 가져야한다」는 것이 네번째 수칙. 인체의 운동도 그렇지만 우주도 리듬을 하며 움직인다. 우주적인 리듬과 내재적인 리듬이 조화를 이룰때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따라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한다.

마지막으로「충분한 수면」이 절대로 필요하다.매일 7시간40분정도는 잠을 자야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李교수는『이러한 5대수칙을 지켜가며 생활하면 스트레스를 풀고 좌절에 직면해도 쉽게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533-2361



운전학교
PRINCIPAL
DRIVING SCHOOL
* LEARN DEFENSIVE DRIVING *
●이론과 실기 그리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빠르게 습득하도록 지도함.
CPDEA MEMBER
☎ 221-7783. 789-1679

Springwood Homes inc.
당신도 후로리다 휴양지에 별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래 소개된 COTTON-WOOD MODEL HOUSE는 Golf Courses, 학교, 쇼핑센터, 교회, 공원에 인접하고 WALT DISNEY WORLD까지 1시간거리, 그리고 해변에서 10분거리의 멕시코만에 있는 Clear Water 근처의 SPRING HILL COMMUNITY에 건축되고 있는 10가지 Model의 별장중 하나입니다.
The Cottonwood *$21,000 (U.S. funds)
Terms min. 20% down payment
이와 같은 중앙식 냉난방의 2 Bed Room Detached House를 여러분의 구입 선택하는 땅에 마련하실 수 있읍니다.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12페이지의 소개 팜플렛과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읍니다.
현지답사와 년중 사용치 않는 동안의 Rental Service를 알선해 드리겠읍니다.
SANG ROCK INC. 일동 이영웅, P. ENG., 장복성, P. ENG., 조규열, 김동천, 권용길, 안영운
TEL : 661-3124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드리는
한인식품
한인에 필요한 식품 생활필수품 일체
연중 무휴 아침10시부터 밤10시까지
시내 전역과 근교 무료배달
15 West Deane Pk. Dr. (east mall Plaza)
Etobicoke Tel. 622-2643 대표 손덕수

Grant Brown
GM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 7161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現代史의 現場 ㉕

韓末 悲運속 胎動…受難의 연속

한국민족주의 原點을 찾는다

抗日言論史

改革의지 독립신문 3년만에 廢刊

韓末 쓰러져가는 나라의 운명과 함께 태어난 우리나라 신문은 우리민족이 겪었던 수난의 기록사였다.

1896년4월7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이 창간됐다. 바로 이시기에 甲申政變으로 미국으로 망명했던 徐載弼이 12년만에 환국, 사회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독립신문을 창간했다.

독립신문은 제호가 상징하듯이 외세로부터의 독립의식고취와 개화사상, 민족주의사상을 불러일으킨 혁신적인 신문이었다.

이신문은 4면중 3면은 순한글판, 한면은 영문판으로 발간하여 한국의 입장을 외국인에게 대변했다.

독립신문은 발행취지대로 정부, 탐관오리들의 비행과 외국열강의 한국침략기도를 가차없이 폭로했다. 徐載弼은 결국 정부관계자와 일본 러시아공사의 공작에 의해 2년만에 추방되었다. 이에따라 독립신문도 3년간 발행되다 폐간되고 말았다.

독립신문에 뒤이어 민간신문들의 성장기가 시작된다. 1898년에는 매일신문 제국신문 皇城新聞이 잇달아 창간됐다.

이들 민간지들은 한결같이 독립신문과 비슷한 논조로 정부와 관원 외국열강의 침투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1900년8월 皇城新聞은 일본과 러시아가 한국을 분할하려한다는 기사를 실었다가 사장南宮檍이 구속되는 수난을 겪었다. 이 최초의 언론인 구속사건을 계기로 그 언론탄압사건이 늘어가기 시작했다.

1904년2월 露日전쟁이 터지자 일본의내정간섭은 점차 강경해졌고 드디어 日軍은 이해 7월24일 군사경찰훈령을발표, 언론탄압을 본격화해나갔다. 이군사경찰훈령은 집회 신문 잡지등이 치안을 방해한다고 인정될때에는 해산 정지 금지시킬수있다고 규정해놓고있다.

주한일군헌병사령부는 군사훈령의 시행에관한 內訓을 10월15일 발표하면서 첫조치로 제국신문을 한달간 정간시켰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신문논조는 전혀수그러들지않았다. 사전검열에서 저촉되는내용은 활자를 뒤집어서 발간하는 이른바 「벽돌신문」도 나오기 시작했다.

1905년11월17일乙巳조약이 체결되자 皇城新聞은「是日也放聲大哭」이란 비분강개의 논설을 실었다. 일제침략의 부당성과 조약의 무효를주장하고「영달과 이익에 눈이 어두워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된 개돼지만도 못한 大臣들은 이제 황제와국민들을 무슨 명목으로 대할것이냐」고 크게질타한 논설이었다. 張志淵은 이논설을 검열을 받지않고 게재, 배포함으로써 皇城신문은 무기한 정간당했고 張志淵등 10여명의 사원이 체포됐다.

당시 사전검열제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는 1906년3월21일 제국신문이 사흘간 정간된후 독자들에게 해명한 기사를보면 잘알수 있다.

『검열하는 일인이 무슨 귀절이든 내지말라고 하면 그 귀절은 글자를 뒤집어 박히며 그자리에 다른 말을 채우려면 또 검열을 받아야하는데, 매양 낡은전몰고 채울말도 없어서…금일부터 발간하오니…한마디경고할 것은 어서학문힘쓰고 일들하여 국력부강하여 이런 검열받지않고 신문발간하도록 하시기 바람』

특히 이시기에 가장강경한 반일논조를 전개한 것은 1904년에 창간된 大韓每日申報였다. 영국의 젊은 언론인 베델(한국명 裵說)이 사장, 梁起鐸이 총무로있던 이신문은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잡으려는 왕실을 비롯한 민간유지들의 비밀출자까지 있었다.

이신문은 1만8천부까지 발행하는 기록을 세웠다. 영국인명의로 발행되어 검열을 회피할수 있었고 당시의 의병활동、헤아밀사사건、을사조약의 강제체결경위등을 낱낱이 보도했다. 당시 이신문의 梁起鐸 朴殷植 申采浩등의 칼날같은 필봉은 초대총감伊藤博文을 곤혹케 만들었다.

1907년 7월 24일 일제통감부는 李完用내각을 시켜 신문발행의허가 보증금제 발매금지압수 정간 벌금 체형등을 규정한 법을 제정했다. 그것은 광복후까지 언론의 숨통을 쥔 악명높은 光武新聞紙法이었다.

일제통감부는이와함께 침략정책수행에 가장 방해가 되고있는 裵說의추방을 위해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는한편, 교사선동혐의로 고소했다. 1908년6월15일 주한영국총영사관에서 열린 2차재판에서 裵說은 3주간의 금고형과 당국의소환에 응한다는 조건으로 보증금2천달러를 납부하라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관결에 따라 裵說은 上海로 호송되어 3주간의 옥고를치른뒤 귀국, 신문운영권을 그의 비서인 만함(萬咸)에게 맡긴다. 그는 이듬해 5월 서울에서 37세의 나이로 숨졌다. 이어 통감부는 梁起鐸을 國債보상금횡령혐의로 구속했으나 4차례공판끝에 무죄로 풀려나오게 됐다.

1910년 8월22일 이른바「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된후 제국신문, 皇城新聞등은 모두 폐간되었고 대한매일신보는 일제통감부가 인수,매일신보로 제호를 바꿔 총독부기관지로 발행했다. 이때부터 총독부의 武斷정치가 계속된 10년동안 우리언론은 암흑시대에 들어갔다.

총독부는 3·1독립운동으로 對韓식민정책에 일대전환을 가져오지 않을수 없었다.

1920년봄, 총독부는 회유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정치라는 표방아래 세 민간신문의 발행을 허가했다. 3월5일 맨먼저 햇빛을 본 朝鮮日報는 韓·日同化主義단체인 大正실업친목회에서「실업신문」을 지향하고 발행됐다. 4월1일 창간된 東亞日報는「민족지」로서의 성격을 내세우며 출발했다. 같은 날 나온 時事新聞은 新日本主義를 표방하고 일본정부에 참정하자는 운동을 벌인 국민협회기관지로 출발했다.

◇1907년께 韓末신문사 편집국。영국데일리 메일기자 매킨지가 취재차 한국에왔을때 찍은 사진으로 그의저서 「한국의비극」에 수록돼있다。사진은 대한매일신보로추정되고있다。

反日인사 알려고 發行허가
事前검열 말썽땐「벽돌신문」

한편 時事新聞의 경우 발행인 閔元植이 동경에서 유학생에게 암살된후 1년도 못돼 폐간됐다. 이신문을 대신해서 1924년3월 崔南善이 時代日報를 창간,민족지를 표방했다 (후에 中外日報, 中央日報, 朝鮮中央日報로 제호가 바뀜).

그러나 당시 일제가 표방한 문화정치와 민족지들의 발행허가에는 다른 저의가 숨겨져 있었다. 그때의 고등경찰관 白川佑吉의 다음과같은 술회로써 알 수있다. 『적을 알아야 이쪽의 방비책도 쓸 수 있읍니다. 신문을 허가해 중심인물들의 동정을 알 수있고, 그들을 한데 모아놓아야 유사시에 일망타진할수 있읍니다』

일제의 신문에 대한 탄압은 제도화되고 조직적 이었다. 사전규제를 위해 어떤 사건에 대해 간담회 주의 경고 금지의순으로 제동을 걸었다. 정간조치를보면 20년간 東亞, 朝鮮이 각각 4차례, 中外日報가 한차례씩 당했다. 이밖에 東亞日報는 판매금지63회, 압수 489회, 삭제 2천4백여회, 朝鮮日報는 압수 5백여회, 빈번한 발매금지, 삭제처분을 받았다.

東亞日報 정간중에 논설반張德俊기자가 취재중 일군에게 피살당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朝鮮日報는 1925년9월8일자 사설「조선과 露國과의 관계」로 3차정간을 당하고 발행인 金東成, 인쇄인 金炯元(사회부장)은 구속됐다. 총독부는 1개월8일만에 복간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띤 기자들의 해고를요구했고朝鮮日報는 17명의 기자를해고했다.

東亞日報는 1926년3월5일자에 소련에 있는 국제농민회 본부로부터 우리농민에게 보내온 전문을 번역게재했다가 2차 정간을 당했다. 이사건으로 주필宋鎭禹 편집겸발행인 金鐵中등이 수개월동안 옥고를 치렀다.

한편 일제의 잦은 정간조치와 압수처분등 언론탄압에 맞서 1921년11월27일 최초의 기자단체인無名會가결성되어 첫결의로서 검열제도의 철폐를 내세웠고 23년6월에는 언론인과 변호사가합동하여 신문지법·출판법改正期成會를 조직, 악법의 철폐를요구했다. 이무렵 친일단체인 各派有志聯盟의 정치깡패 朴春琴등이 宋鎭禹, 金性洙에게 폭행하는사건이 일어났다. 이를계기로 1924년 4월부터 7월까지 언론집회압박탄핵대회를 열기도 했다. 無名會는 처음에는 압력단체로서의 제구실을 못하다가 25년4월 7백명의 언론인이 참석하는 전조선기자대회를 열고 언론관계악법철폐를 요구하는 5개항의 결의문을채택하기도 했다.

1930년을 고비로 민족지들의 항일논조는 크게 둔화되기시작,30년후반에는 서서히 식민정책에 굴종하는 친일언론시대로 접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인들의 항일정신의 마지막 불꽃은 1936년 8월 베를린올림픽대회에서우승한 孫基禎선수의 가슴에 부착된 日章旗말살사건으로 타오른다.8월13일자 朝鮮中央日報와 8월25일자 東亞日報는 孫선수의 가슴에부착된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실었다.

처음 朝鮮中央日報의 사진은 선명치 못해 그대로 넘어갔으나 東亞日報의 사진은 크게 문제가 됐다. 일본경찰은 즉시 사진수정을 발의한 東亞日報운동부기자 李吉用, 일장기를 지운 전속화가 李象範, 사회부장 玄鎭健, 사진부장申樂均, 편집기자 林炳哲등8명을 무더기로 구속하고 8월27일자로 東亞日報를 무기한 정간시켰다. 뒤늦게 사실이 밝혀진 朝鮮中央日報는 자진휴간에 들어갔으나 끝내 폐간됐다. 東亞日報는 2백79일이란 최장기의 기간을 거쳐 37년6월에야 복간됐다.

이사건과 함께 1937년7월7일 中·日전쟁 발발을 계기로 조선총독南次郎은 한반도를 전시체제로 전환시켜 언론은 친일을 강요받는 시대로 접어든다. 이때부터 민족지들은 日軍을「皇軍」 또는「我軍」으로, 우리민족을「皇民」이라 고호칭하기 시작했다.

1938년2월26일 일제가 이른바 조선지원병령을 공포하고 시행준비를 서두를때 동아 조선 민족지들은 극구지하고 찬양하는 논조를 펴야했다.

당시민족지들의논조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內鮮一體의 大精神으로…병역의무의 1단계를 실시하는 것이다. 皇國臣民된 사람으로 그누가 감격치아니하며 그누가 감사치 아니하랴』(38·6·15)

또 1940년1월元日의 신년사에서는 일본천황에게 다음과같이 충성을 맹세하는 글을실어야했다.

『聖戰분투3개星霜 常勝皇軍의 위용은 中外에 떨치고…天皇폐하께옵서는 御政務 御軍務 御精勵하옵신 御日常으로 계신것을 拜聞하옵고 우리국민은 鴻大한 聖恩에감사할 뿐이다』

일제는 1940년8월 민족지들을 폐간시켰다. 이때부터 45년까지의 5년간은 총독부기관지인 每日申報와 日文의 京城日報만 남게되어 다시 언론의 암흑시대를이루었다. 【林承茂기자】

開化·自主·抗日이「使命」

日帝末期의 위축된 紙面이 적지않은 汚點

鄭晋錫 <韓國外國語大교수>

한국의 언론은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고 발전한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나라의 開化와 自主라는 벅찬사명을 짊어지고 출발했다는 면이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다.

漢城旬報와漢城周報가 각기 그창간사에서 국내기사와함께 세계 각나라의 소식과 문화·정치·풍속등을 비롯해서 인품의 선악, 물가의 고저까지를 사실대로 알림으로써『안으로는 백성을 敎化하고 밖으로 外侮를 막아 전쟁을 없앨수있다』고한것은당시신문의사명을 천명한 것으로 볼수 있다.

旬報나 周報는 비록 외국의 신문체제를 본뜬것이었으나 신문발간의 정신은 이미 우리나라정치의 요체로서 오래전부터 유래했던 것으로 파악하고있다.

임금이 신하의 바른말 듣기를 간절히바라고 다스림에 있어서 억압함을 삼갔으며 선비는 諫言을 大夫에게 전달했던 정치의 道가 바로 오늘날 신문의 사명이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사람들의 막힌 정이 뚫리고 天下의 賢俊한 사람들이 모이고 아름다운 말이 묻히지 않게되므로 萬邦이 모두 편안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전래의治道와 서양의 체제를 모방하여 신문을 발간하는 것이라 풀이하고 있다。<漢城周報 제30호「論新聞之利益」>

이러한 신문발간의 정신은 그후 1896년의 독립신문에서 서구적인 개념이 더많이 도입되어 1898년에 창간된매일신문, 제국신문, 皇城新聞등의 민간신문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후진국의 국가발전 또는 근대화에 있어서 매스미디어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역할을할수 있지만 특히 교육자로서의기능이 막중함을 여러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1974년 일본에서 열린 IPI(국제신문인협회) 총회에서도 전理事長이었던 자칸데는 후진국에 있어서 매스미디어가 나라의 발전을고무하고 높은 이상을 향해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한것도 이와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한말에서 일제치하까지의 우리나라 신문이바로 후진국에 있어서의 교육자이며 지도자로서의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할수있는것이다.

1904년에 창간된 大韓每日申報는 이러한 후진국 매스미디어의기능에다가 당시 민족적인 당면 과제였던 항일이라는 요소를 뚜렷이 부각시켰다. 영국인 裵說의 소유라는 방패막이를 내세워 梁起鐸、朴殷植,申采浩등의 우국 논객들이 날카로운 항일논조를 펴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國債報償運動을 벌이는 한편 義兵등의 무력 항쟁을 보도했다. 민족지들은 한일 민족운동의 구심점이 된것이다.

한말 민족지들의 국민계몽과 외세에 대한 저항정신은 1920년대의 언론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1920년에 창간된 朝鮮日報 東亞日報 그리고 1924년 崔南善이 창간한 時代日報등이 1년에도 수십차례씩의 기사삭제와 압수처분을 당하고 3개민간지가 모두 몇차례씩의 무기정간을 당했던것은 다른나라의 언론사에서는 보기드문 가혹한탄압이었다.

그러나 민간지들의 논조도 1930년 무렵을 고비로 현저히 위축되어 30년대후반의 지면은 차차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同化되는 부끄러운모습을 보여준다.

일제치하 민간지들은 한말의 그것에 비해 체질적인 취약점이있었다. 1920년대의 신문은 벌써 한 말 보다는 규모가 훨씬 비대해 졌기 때문에 경영상의 타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수 없었고 따라서 그 抗日論調에도 뛰어 넘을 수없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가지는 30년대의 시대상황이 제한된 선에서나마의 항일언론을 허용하지 않았다.

일제는 한국 안에서 발간되는 신문 가운데도 한국인이 발행하는 것과 일인이 발행하는것은 法規上 차별을두어 민족언론을 근원적으로 억압했다. 거기다가 일본 본토에서도 軍國主義체제가 강화되고 침략전쟁이 확대되면서 언론과 지식인에 대한 탄압은 강화되었다. 한국에서의 국어말살、創氏改名등이 강행되는 민족의 수난기에처한 신문들은 스스로 안고있는 체질상의 취약점을극복할수가 없었던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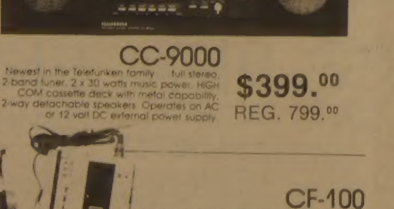
한말 露日戰爭이후에는 일인들이 한국어로발행한 친일논조의 신문들과 한국인들이 만든 친일지(國民新報, 大韓新聞)들이 일제의 한국침략에 앞잡이 노릇을했고,日帝말기에는 총독부기관지 每日新報는 더말할것도 없지만 민간신문들도 민족사에 적지않은 오점을 남겼던 것이다.

1883년 漢城旬報에서 일제가 패망하던때까지의 언론은 급변하는시대상황속에서우리민족의 수난을 기록하는 역사가의역할과함께 스스로 민족의 활로를 타개하기위한 투쟁을 전개하면서도 때로는붓대가 휘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4월말까지 특별할인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TELEFUNKEN
SUPER SPECIAL SALE

Studio 1M Hi Fi
The ultimate in portable stereo sound 2 x 60 watts music power, 4-band tuner, HIGH COM cassette deck with metal capability, detachable 3-way speakers. Operates on AC, 12 volt car/marine battery, regular and rechargeable batteries
$699.00
REG. 1295.00



CC-9000
Newest in the Telefunken family ... full stereo, 2-band tuner, 2 x 30 watts music power, HIGH COM cassette deck with metal capability, 2-way detachable speakers. Operates on AC or 12 volt DC external power supply
$399.00
REG. 799.00

NOW ONLY
$ 3499.00
Reg. $5,000 or less

CF-100
Portable stereo cassette player and FM radio in one compact unit! Pre-select any three FM stations and choose by pushbutton. Plays all tapes including metal. Supplied with carrying case, headphones, demo cassette and batteries.
$99.95
REG. 23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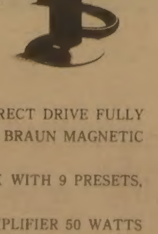
STEREO KING
Audio - Video - Sales & Service

AKG / AIWA / SANSUI / SHERWOOD / S.A.E.
SHARP / TELEFUNKEN / GRUNDIG / NORDMENDE / INFINITY / JENSEN

N / W / E / S — Dundas St. / Pacific Ave. / Keele St.

2989 DUNDAS ST. WEST
TORONTO, ONT. M6P 1Z4
PHONE: (416) 766-4770
김 봉 훈

BRAUN



BRAUN P-1 TURNTABLE : QUARTZ LOCK DIRECT DRIVE FULLY AUTOMATIC, WITH LOW MASS TONE ARM AND BRAUN MAGNETIC CARTRIDGE,

BRAUN T-1 TUNER : DIGITAL QUARTZ LOCK WITH 9 PRESETS, PLL-MOSFET FRONT END, AM-FM LW,

BRAUN AMPLIFIER : LOW DISTORTION DC AMPLIFIER 50 WATTS PER CHANNEL LED OUTPUT LEVELS,

BRAUN C-1 CASSETTE DEDK : 3 MOTOR, ALL SOLENOID, WITH CONVENIENT MOTORIZED CASSETTE DRAWER METAL TAPE CAPABILITY,

BRAUN L6070 HE SPEAKERS : 3 WAY SPEAKERS WITH 70 WATTS HANDLING CAPACITY,

STEREO KING
Audio - Video - Sales & Service

AKG / AIWA / SANSUI / SHERWOOD / S.A.E.
SHARP / TELEFUNKEN / GRUNDIG / NORDMENDE / INFINITY / JENSEN

N / W / E / S — Dundas St. / Pacific Ave. / Keele St.

2989 DUNDAS ST. WEST
TORONTO, ONT. M6P 1Z4
PHONE: (416) 766-4770
김 봉 훈

결혼資金위해 拳銃강도

20代청년 "소 팔겠다" 유인 5백만원탈취

승용차 운전사가 소리쳐 경찰·行人과 격투끝에 잡혀

어제 平澤서

【平澤=方吹俊기자】동네 처녀와의 결혼식을 1주일 앞둔 청년이 결혼자금을 마련키위해 권총강도를 저질렀다.

平澤경찰서는 23일 崔成伯씨(25·경기平澤郡青北面魚蓮里55의3)를 특수강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崔씨는 이날상오7시께 平澤읍내 平一가축병원(平澤2里)에 『소6마리를 팔겠다』고 전화를 걸어 소를 사겠다는 축산업자 林東基씨(55·平澤邑通伏3里)와 흥정을한뒤 상오9시께 인근다방에서 林씨를 만났다.

崔씨는 병원소속 경기2나7484호 승용차(운전사崔光默·26)를 타고16㎞ 떨어진 青北面魚蓮里앞 제방에 이르러 45구경 권총을 품속에서꺼내 위협, 현금5백36만2천5백원을 빼앗았다.

앞자리에 앉았던 범인崔씨가 권총을 겨누고 『소값을내라』고 위협하자 뒷좌석의 林씨는 갖고있던돈 5백36만2천5백원가운데 40만원만남기고 나머지 4백80여만원을 운전석 등받이 뒤포킷에 감추고 40만원만 내주었다.

범인이 『소6마리값이요 것밖에 안되느냐』고 다그치자 林씨는 『나머지돈은 읍내 한일축산에 맡겨두었다』고 대답, 범인은 차를 읍내로 돌리게했다. 읍으로돌아오는도중 비포장도로에서 차가덜컹거리는 바람에 운전석뒤 포킷에숨겨두었던돈이 차바닥에 떨어지자 林씨가 발로밟아숨겼는데 뒤늦게알게된 崔씨는 이돈도 모두 빼앗았다.

상오11시10분께 平澤읍내 한일축산앞에 도착하자 범인은 林씨에게『나머지돈을 찾아오라』고 요구, 운전사 崔씨가 차를 세우면서『강도야』하고 소리치자 인근을 순찰중이던 平澤경찰서 曺基正경장(43)과 禹相鎬순경(35)이 달려와 범인과 격투를 벌였고 행인3명이 합세, 범인을 붙잡았다.

崔씨는범행을위해 3일전 가축매매알선도 하는 平一가축병원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갖고있는 소 6마리를 팔겠으니 살사람을 알선해달라』고 부탁한뒤 22일오후 다시전화를걸어『살사람이있다』는말을 듣고『소값 1천2백 만원을 갖고오게해 내일아침통화하자』고 약속한뒤 이날상오 대기중이던 林씨와전화로 거짓 흥정끝에 유인,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은 오는30일 읍내幸福예식장에서 같은마을 처녀(25)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데 『결혼자금이 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말했다.

경찰은 범행에사용한 권총과 실탄5발, 과도,포승등을 압수하고 총기출처를 수사중이다.

舞蹈유흥업소 營業시간 制限

내일부터 全面실시

관광호텔의 나이트클럽과 외국인전용 유흥업소를 제외한 전국의 고고홀 디스코클럽 카바레등 무도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밤12시까지로 제한키로한 정부는 이를오는25일부터 전면 실시키로했다.

입장시간은 하오6시.

정부는 이를 어길경우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등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영업시간내 출입자에대해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확인, 미성년자여부를 가려 입장시키도록 지시했다.

長城驛 역무원拘束

화물列車 충돌관련

【光州】전남長城경찰서는 23일 長城역 역무원 金昌玉씨(47)를 업무상과실 기차전복죄및 업무상 과실치상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金씨는 지난21일 하오11시께 술에취해 長城역에 대기중인 松汀里발 裡里행 1115호 화물열차에 통과신호를 보내 長城역에서 4.7㎞북쪽에있는 安洲역을 출발, 하행중인 1215호 화물열차와 충돌케했다는 것이다.

失踪동원탄좌 舍北광업소 産災계장

百64일만에 變屍발견

【舍北】강원旌善郡舍北邑 동원탄좌 舍北광업소 산재계장 朴武官씨(39)가 실종 1백64일만인 22일 강원寧越郡上東邑 계곡에서 변시체로 발견됐다.

朴씨의 시체는 이날상오 11시30분께 上東邑九來里 뒷산 어면재 두릅계곡에서 더덕을 캐던 이마을 이동원씨(41)가 발견, 경찰에신고했다.

朴씨는 지난해 12월10일 하오2시30분께 寧越읍에 있는 노동부 寧越지방사무소 산재과에 들렀다가 간뒤 실종됐는데 경찰은 朴씨가 산재보험금문제등과 관련,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있다.

義父를 강도殺害

10代 6명令狀

【釜山】경남梁山경찰서는 23일 최모양(18)과 장모양(18)등 2명을 강도살인혐의로, 이들에게 강도를 교사한 장모군(19)등 4명을 강도예비음모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의하면 최양과 장양은 지난 19일하오4시30분께 장모군등의요구로 유흥비를 마련키 위해 梁山郡機張邑大邊里의 최양집에 찾아가 방안에 있던 최양의 의붓아버지 최하야씨(83)의 손발을 전기줄로 묶고 입을 수건으로 막아 숨지게 한후 장롱을 뒤져 5돈쭝의 금반지, 남자용손목시계 각 1개와 현금 12만원등 모두 37만여원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는것.

이들 10대 6명은 부산시中區光復洞에 있는 디스코클럽등 유흥장을 돌아다니며 훔친 돈을 다쓰고 釜山鎭區釜田洞 N여관에 함께 투숙했다가 이날 새벽3시께 경찰에 붙잡혔다.【翰】

警察車、트럭받아

운전미숙 警監이 몰다… 4명 死傷

【全州】22일하오8시40분께 전북茂朱郡赤裳面斜山里 마산부락앞에서 茂朱경찰서 경무과장 李熙遠경감(37)이 茂朱경찰서 소속 전북1가 3934호지프를 몰고가다 마주오던 충북7가7469호 퍼트럭(운전사 尹동중·37)을들이받아 트럭운전사 尹씨가숨지고 李경감과 茂朱서 형사계장 서일남경사·염승문일경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茂朱郡安城面에서 茂朱鎭安 長水경찰서 수사과장회의를 마친 李경감이 경찰서로 돌아오는길에 운전하던 염일경을 뒷자리에 타게하고 자신이 대신 운전을하다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트럭을 들이받아 일어났다.【翰】

全北大生、2명拘束

교내示威 주동혐의

【全州】全州경찰서는 23일 전북대 李民雨(22·무역학과4년)과 申貴鉉군(22·화학과3년)등 2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李군등은 지난20일 하오 全北大 사회관옆에서 교내시위를 주동한 혐의를 받고있다.【翰】

強盜·강간20여회

3명에 死刑구형

서울지검 金鶴在검사는 23일 黃仁奎피고인(24)등 7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黃피고인과 崔允成(24) 崔成默피고인(20)등 3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金鎭基피고인(21)등 2명에게는 무기징역을, 黃東奎피고인(20)등 2명에게는 징역10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

黃피고인등은 지난해 12월8일낮 서울中區新堂2洞 鄭모씨집에 흉기를들고 침입, 1천5백여만원의금품을 털고 鄭씨의 딸을 윤간한것을 비롯, 지난해9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의 강도강간, 13차례의 강도등 모두 21차례의 범행을 한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浦項槐洞역장 令狀

驛확장 都給미끼 돈받아

【大邱】大邱東部경찰서는 23일 역확장공사를 도급주겠다는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받은 경북浦項市槐洞역장 장상규씨(55)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장씨는 지난해 4월29일 하오2시께 浦項시내 천지다방에서 토목공사업자 韓원식씨(47·大邱市壽城區泛魚洞)등 2명으로부터 槐洞역에 3억5천만원규모의 역확장공사를할때 1억원짜리토목공사를 도급주겠다는 조건으로 2백만원을 받은 혐의다.【翰】

서울大졸업생 反政府유인물 뿌려 拘束

서울東大門경찰서는 23일 金鎭漢군(26·서울대 심리학과졸업·서울永登浦區文來洞13)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金군은 지난18일 하오8시30분께 서울鍾路區蓮建洞136기독학생회 주관 4·19기념 강연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4백여명의 시민들에게 반정부유인물 2백여장을 뿌리고 시위를 선동한혐의다.

示威혐의 東國大生 징역3년 宣告

서울형사지법 鄭凱秀판사는 23일 金유능피고인(22·東國大 농경제과2년)에게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金피고인은 지난달 7일 하오1시5분께 東國大 명진관 3층복도에서 유리창을깨고 「東國반파쇼민주투쟁선언」이라는 반정부 유인물 1백여장을뿌려 3백여명의 학생들에게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이 구형됐었다.

"母國의 꺼져가는 어린生命을 구합시다"

異國서 꽃핀 사랑의 温情

美시카고市 허정식씨、전북沃溝 심장병어린이돕기 募金앞장

작년 故國방문때 慘狀듣고 시작

【美시카고支社=이윤모기자】『하루하루 생명이 꺼져가는 모국의 어린생명을 위해 1달러씩을…』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시카고시의 한인동포사회에서 시작된 고국의 심장병어린이환자를 위한 모금운동이 오는 5월8일 어머니날 만찬회를 앞두고 열기를 더해가고있다. 태평양을 건너는 동포사회의 이같은 온정의 물결은 억대의 귀금속을 안방장롱속에 넣어두었다가 잃고도 벙어리냉가슴만 앓는 요즘세태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느끼는바를 많게 한다.

모금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허정식씨(여)。허씨는 群山 開井간호학교출신으로 미국에 이민, 남편 조셉·로드리기스씨(52·일리노이州 축구협회 회장)를만나결혼했다。開井간호학교동창회장직도 맡고있는 허씨는 지난해10월 남편과함께 한국을찾아 群山을 방문했을때 시그레이브기념병원(舊開井병원·원장 金庚渡박사·63)엘들렀었다。

그는 원장 金박사로부터 심장병을 앓고있으면서도 집안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받지못해 시한부인생을 살고있는 조국의 새싹들에관한 얘기를듣고 이를 돕기로결심, 미국에 돌아온후 시카고에있는 開井간호학교출신 동문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金박사에의하면 전북沃溝郡일대의 국민학교 어린이들 가운데는 심장판막、심실중격결손등의 증세로 심장병을 앓고있는 어린이들이 많다는것。金박사등시그레이브병원진료팀이 지난81년11월 농촌지역 정기 순회진료때 발견한 심장병증세 어린이만도 무려22명。

이에 당황한 金박사는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과장 李雄求박사에게 지원을 요청、李박사의 정밀검사결과 이가운데 11명은 곧수술을 받지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중증상태로 밝혀졌다。

이때부터가 문제였다。한 어린이당 1천만원이나드는 엄청난 수술비를 농촌지역에서는 감당할수 없었기 때문이다。金박사는 이 어린이들을 위해 부지런히 서울을 오가며 韓美재단、陸英會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세브란스 병원의 협조로 지난해4월과 9월 두차례에걸쳐 우선 여섯어린이는 수술을받아 건강을 되찾을수 있었다。그러나 서수국교 4년 고석철군(11)은 수술을 받아보지도 못한채 지난해4월 사망했다。

현재 수술 대기중인아동들은 모두 4명。허미라양(12·술산국교)은 황로씨 증후군을、박순이양(12·선인국교)은 심방중격결손증을、강경희양(12·옥봉국교)은 승모판폐쇄부전증을、박영하양(8·[illegible])은 심실중격결손증을 각각 앓고있다。이밖에 11명이 재검사후 수술여부를 결정해야한다。

金박사로부터 이같은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허씨는 남편、딸과함께 모금계획을 짰다。

우선 허씨는 동문들을중심으로 모금운동을 펴 시카고뿐만아니라 로스앤젤레스、휴스턴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사회와 접촉을 갖기시작했으며 시카고한인회(회장 박중규)등 많은 단체로부터 협조를 약속받았다。현재의 모금액수만도 4천5백달러。

허씨는『개정간호학교동창회원중 한명은 직장을 두세군데씩이나 뛰면서 이운동에 헌신적으로나서、불과 2주일사이에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2백50명의 미국인들로부터 기부금을 약속받았다』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美國人남편·딸도 발벗고 나서… 열띤呼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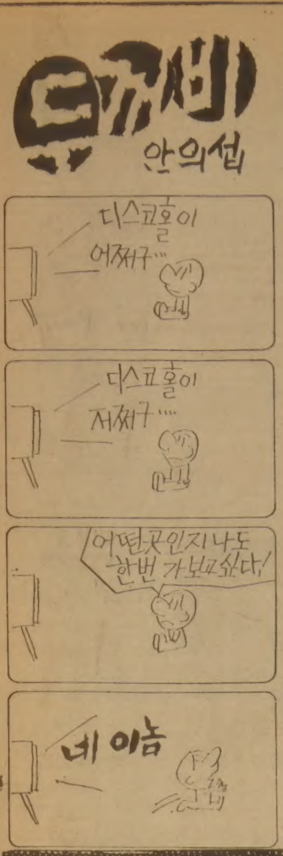
또 남편 로드리기스씨는 미국올림픽위원회까지 동원、각계각층의 미국인들을 접촉하고있다。로드리기스씨는『한국의 심장병 어린이들을위한 안내책자를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이와함께 모금을위한 자선축구경기도 주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딸 지연(16·스칼라스틱高)양은 처음엔 클래스·메이트를 중심으로 활동을 펴다가 이젠 학교전체로 이운동을 확대하고있다。

『처음에는 저혼자 시작했던 이운동에 이젠 저의 20명에 가까운 미국인친구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최근에 조직된 저의 고등학교 모금위원회에선 카·위시(洗車)를 도맡아 기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읍니다』

한편 이운동에 감명을받은 재미동포 고등학생들도 적극 앞장서고있다。레인·텍한인학생회는 1차분으로 2백20달러를 모금했는데 한인학생들은『돈이 없어 수술을 못받는 동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앞으론 용돈을 절약、계속되는 모금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하고있다。

◇허정식씨 一家 고국의심장병어린이들을 위해모금활동을 펴고있는 허정식씨㊧ 일가。가운데는 남편 로드리기스씨, ㊨는 딸 지연양。【시카고支社=이윤모기자찍음】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H245-3539

소나무 대량盜伐승려 立件

【大邱】八公山 桐華寺경내 소나무도벌사건을 수사중인 大邱東部경찰서는 23일 桐華寺재무담당 승려金三炯씨(33)를 산림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행방을 감춘 사찰인부 金和宗씨(46)등 2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의하면 입건된 재무승金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달동안 사찰인부 金씨등 2명을시켜 당국으로부터 벌채허가도 받지않고 桐華寺대웅전 뒷산에있는 30년생 소나무 10그루를 벌채한것을 비롯 10년생1백년생 소나무와 오동나무등 모두 1백80여그루를 베게한 혐의다。【翰】

과속시내버스 굴러

승객15명 重輕傷

【光州】23일하오1시30분께 전남 光山郡松汀邑新村里 光州공항옆 光州—松汀간 도로에서 光州大昌시내버스 소속 전남5자7247호 버스(운전사 梁信義·39)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던행인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한바퀴반 구르는 바람에 金義禮씨(여·35·松汀邑仙岩里)등 승객15명이 중경상을입었다。【翰】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961

「달리는 웨이터」

오늘 국제마라톤參加 로저 버번氏

나비넥타이에 맥주병들고 질주

「42·195㎞」、우리나라 이수로는 1백리를 조금 넘는다。이처럼 장거리를 마라톤하려면 자기와의 싸움이 꼭 필요하다。

이때문에 마라톤 코스를「멀고도 외로운 길」이라고 부른다。

일류 마라토너들도 코스의 후반에 들어서면 자기몸까지도 무거워 정신력으로 달린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마라톤코스를 검은바지와 와이셔츠에 조끼까지 입고 나비넥타이를 맨 웨이터차림에、그것도 부족해 한손에 맥주병을 받쳐들고 달린다면 믿을 사람이 없을지 모른다。그러나 서울시민들은 24일 한강변 도로에서 펼쳐지는 제2회국제마라톤대회에서 이같은 차림으로 달리는 로저·버번(35·사진)이란「웨이터 마라토너」를 보게될 것이다。

「달리는 웨이터」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있는 버번은 81년과 지난해에 이같은 奇行으로 5개의 신기록을 세워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명물 마라톤너다。그는 82년5월 런던국제마라톤대회에서 맥주병을 올려놓은 쟁반을 오른손에 받쳐들고 전코스를 2시간47분에 주파、주위를 놀라게 했었다。그는 달리는 동안 맥주가 출렁거려 뛰어나오지 않을까 신주모시듯 한다。

그는 원래 마라토너가 아니었다。76년부터 병들고 달리는 웨이터들 경주에 참가、1백2번이나 우승하자 주위에서 권유、79년부터 마라토너로 변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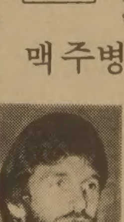
로잔호텔학교를 나온 그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친구와함께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다。

이런점에서 웨이터는 그의 천직인지도 모른다。

『왜 그러한 모습으로 달리냐』고 물으면『병을 받쳐들고 달리는 것이 쉬운줄 아느냐』고 엉뚱한 대답을 한다。『웨이터생활이 몸이 배어있지 않은 사람은 금방 팔이 아파진다』고 은근히 자기실력에 대한 긍지를 내보인다。

『웨이터는 손님을 가장 편안하게 모셔야합니다。저는 맥주병을 받쳐들고 달릴때 항상 맥주를 지금 손님에게 가져가는 기분으로 달립니다』

1m92㎝의 훤칠한 키에 배번55번、금발에 맥주병을 받쳐들고 한강변을 달릴 그에게서 천직이 무섭다는 사실을 느낀다。【薛熙瀚기자】



533—2361

내고향통닭집

가격뿐만 아니라 맛도 아주 달라졌읍니다.

내고향메뉴

오뎅백반	$3,50
우동	2,95
짜장면	2,95
칼국수	3,25
냉면	2,95
통만두	2,95
곰탕	2,95
김초밥	2,95
생선초밥	3,95
비빔밥	2,95
불고기백반	4,95
갈비백반	4,95
떡만두국	3,25
생선찌게백반	3,95
두부찌게백반	3,50
순두부찌게백반	3,50
된장찌게백반	3,50
곱창전골 2인분	9,00
빈대떡	2,50
통닭 Bar B.Q. Whole Chicken	4,95
½닭 Bar B.Q. ½ Chicken	2,95

CHARGEX VI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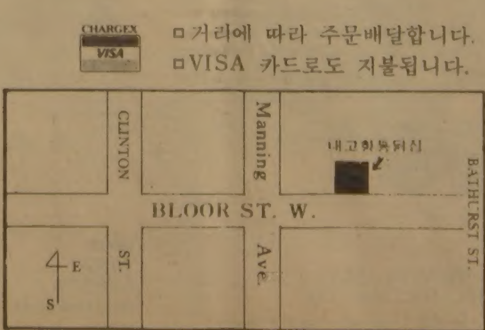
□거리에 따라 주문배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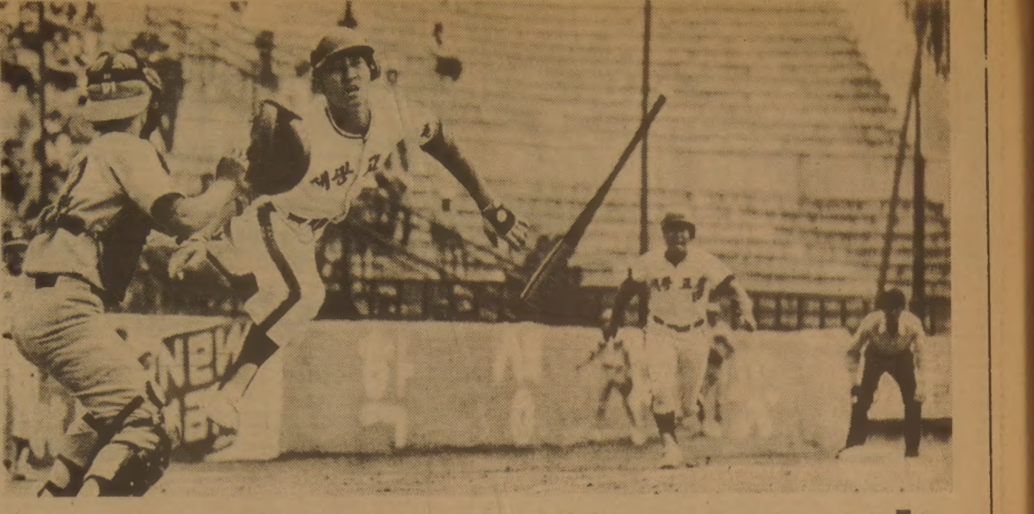
□VISA 카드로도 지불됩니다.

내고향통닭집

658 1/2 BLOOR ST. W.

☎537-0432





◇허공에뜬 방망이 世光高—釜山高 대결, 2회말 世光9번 申炳喆이 주자를 3루에 두고 스퀴즈·번트를 시도했으나 파울이 되어 실패, 방망이만 허공에 떠 있다。

光州一은 原州에 콜드勝

世光, 작년覇者 釜山꺾어

得點 연결안된「安打우세」4-2

대통령盃 고교野球 첫날

世光高와 光州一高가 금년도 첫 고교야구전국대회서 승리했다. 23일 1만5천여 관중과 재학생, 동문들의 환호속에 서울운동장서 개막된 17회대통령배쟁탈전국고교야구대회서 컴퓨터투수 宋津宇의 世光高는 작년도우승팀 釜山高를 4—2로 꺾었으며, 光州一高는 李昊星 千相柱의 대회1、2호 홈런에 힘입어 강원대표 原州高를 9—0、7회 콜드게임으로 물리치고 2회전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는 각지역 예선을 거친 20개팀이 출전, 30일까지 8일간 토너먼트를 벌인다.

첫날경기 하이라이트는 지난대회 우승팀 釜山高와 황금사자기 우승팀 世光高의 대결。

世光高는 지난해 절묘한 컨트롤과 위력적인 코너직구로 컴퓨터투수의 별명을 얻었던 좌완 宋津宇가 호투, 釜山高에 9안타를 산발처리하는 한편 공격에서는 6안타를 모두 득점에 집중시키고 기동력있는 주자플레이가 적중, 9—6의 안타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

釜山高의 선발 金昌基는 포볼과 6안타등으로 4점을 내준후 물러났으며 4회초에 등판한 1년생 朴東熙가 무안타 무실점으로 막는 호투를 했으나 釜山高는 끝내 초반의 실점을 만회하지 못했다.

1회초 釜山高가 2안타를 치고도 점수를 얻지못한데 반해 世光高는 1회말 2개의 연속포볼과 폭투로 1점을 선취하고 2회말에 연속3안타로 1점、4회말에도 연속 3안타로 2점을 추가했다.

釜山高는 4회초 데드볼로 나간 선두 4번 金鎭輝가 희생번트와 수비에러로 홈을 밟고, 6회초 좌월솔로홈런으로 1점을 추가했을뿐 7、8、9회에 계속 2、3루까지 주자를 내보내면서도 후속타가 터지지않아 추격에는 실패했다.

世光高의 6번 鄭鋼燮은 4회말 2타점 결승 2루타를 때리는등 3타수2안타 1득점、2타점의 수훈을 세웠다.

한편 光州一高는 2회초 선두 6번李昊星의 좌월솔로·홈런、1번金星圭의 2타점 안타、2번 千相柱의 좌월 투런홈런등으로 타자일순하며 5점을 올리는등 11안타 9득점을 기록、약체 原州高에 7회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

◇첫날전적

▲1회전

광주일고 150 100 2—9
원주고 000 000 0—0
(7회콜드게임)

▲홈런=李昊星 千相柱(2점·이상2회·광주일고)

부산고 000 101 000—2
세광고 110 200 00×—4

▲홈런=金鎭輝(6회·부산)

인천고 000 013 102—7
신일고 000 000 010—1

三美、後半승부 強했다

홈팀三星에 세번째 逆轉勝거둬

프로야구

三美·슈퍼스타즈가 3번째 역전극을 연출、무서운 저력을 과시했다。

23일 大邱로 원정한 三美는 홈팀 三星에게 0—3으로 리드당하던 6회부터 6번 李善雄의 솔로·호머를 기폭제로 맹렬한 반격을 개시、8회초 無死만루찬스서 4번金鎭雨의 땅볼을 잡은 三星 2루수의 판단미스로 동점을얻고 5번 琴光玉의 2타점 역전결승타로 승부를 결정、7—4로이겨 8승4패의 단독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이날 승리로 三美는4연승을、三星은 5연패를 기록했다。三美는 지난12일 OB에、21일 三星에 대역전승을거두었다。

三美에이스 張明夫는 이날7게임째 출장하여 5번째완투、2회말 三星 李萬洙에게 2점 호머를 얻어맞는등10안타、포볼3、탈삼진 7개로 4점을 허용했으나 三美의 타선폭발에 힘입어 가장먼저 4승을올렸다。張은 7게임서 58회를던져 59안타、4홈런、四死球22、탈삼진33개、실점19、자책점17점으로 방어율2·64를 기록하고있다。

해태·타이거즈는 光州홈구장서 MBC의 1번李海昌에게 선발투수 金勇男이 역전2점홈런을맞아 리드당했으나 8회말 2안타 1포볼로 3—3의 동점을 만들고 연장10회말 2死후 5번金城漢이 MBC구원투수 河基龍의 4구를 통타、안타로 출루했던 金一權을 홈에맞아들여 4—3으로 힘겨운 재역전승을거두었다。

◇23일전적

◆광주

MBC 000 000 300 0—3
해태 000 000 021 1—4
(연장10회)

▲홈런=李海昌(5회2점·MBC)

◆대구

삼미 000 001 132—7
삼성 020 100 010—4

▲홈런=李善雄(7회·삼미) 李萬洙(2회2점·삼성)

◆부산

OB 301 001 ⋯ 1—6
롯데 001 112 ⋯ 0—5
(연장13회)

▲홈런=金宇烈(6회)·金卿文(13회·이상OB) 朴庸成(6회)·金容哲(7·9회·이상롯데)

533—2361

86年 월드컵蹴球 멕시코서 열릴듯

【취리히EFE聯合】국제축구연맹(FIFA)은 22일 오는86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신청을 한 美國과 캐나다 양국에 경기장시설등 제반 준비 상황을 시찰할 조사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공식결정함으로써 70년대회 주최국 멕시코를 86년 월드컵대회 개최지로 사실상 확정지었다.

FIFA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FIFA의 소위원회가 美國과 캐나다의 유치신청을 검토한 결과 『몇가지 중요한 점에서 개최조건에서 벗어난다는 결론을얻고 더이상 양국의 개최신청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벨란제 FIFA회장은 양국축구협회의 실망을 고려하여 이결정을 설명할「私的」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國際野球聯 회장등 임원3명 28일來韓

국제야구연맹(AINBA)로버트·스미드 회장과 美國프로야구 위원회 보위쿤총재、피터·오말리 집행위원장이 오는 28일하오내한한다.

이들은 5월2일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李源京체육부장관、88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金溶植위원장、金澤壽 IOC위원、鄭周永대한체육회장등과 만나 88서울올림픽에 야구의 정식종목채택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 533-2361

17分壁 깼다

전국水泳 朴相天 자유형 千5百m 16분54초65 기록

陸鉉哲·千仁泰도 한국新추가

남고 자유형의 朴相天(서울體高)과 남대 배영의 陸鉉哲(한체대)이 각각 한국신기록을세웠다。朴相天은 23일 잠실 실내 수영장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수영대회 이틀째 남고자유형 1천5백m에서 16분54초65를마크、지난 79년 홍콩수영대회에서 崔學秀가 마크한 종전 한국 최고기록 17분7초18을 13초53 단축하고 처음17분벽을 돌파했다。

남대 배영2백m에서 陸鉉哲은 2분18초12를 마크、종전 한국최고기록 2분18초36을 0·24초 단축하고 신기록을 수립했다。

지난해 자유형 1천5백m에서 17분23초20을 기록했던 朴相天은 금년시즌첫대회에서 자신의 최고기록을 28초55 앞당기는 비약적인 기록향상을 보이고있다。

朴相天의 이날기록은 지난 뉴델리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쓰가자끼·슈지의 기록 16분14초92에 크게 미달、아직은 아시아수준과 큰격차를 보이고있다。

첫날 남대평영 2백m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웠던 千仁泰(한체대)는 23일 남대평영 1백m에서도 1분8초47로 한국신기록을 추가했다。

韓·日배구定期戰 5월28일 갖기로

배구협회는 올해 한·일 남녀배구대표정기대항전을 오는5월28일과 29일 이틀동안 장충체육관서 치르기로 했다。

협회는 당초 3차전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지방대회를 유치하는 시·도가 없어 2차전만 치르기로 했다。

스포츠話題

「사용금지안된醫藥品」실험 選手들에投與…큰効果보여

경기력 향상을위해 우리나라에서도「사용이금지되지않은 의약품」을 선수들에게 장기투여、그결과를 분석한 연구가 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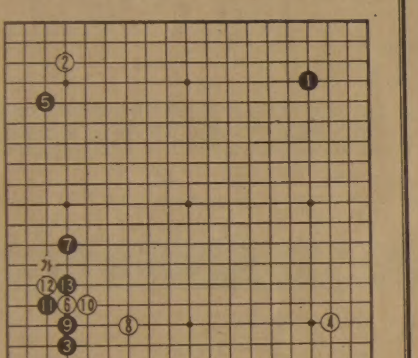
대한체육회 부설기관인 스포츠 과학연구소(소장成煥世박사)는 최근 인삼의주성분을 추출하여만든 의약품(긴사나115)으로 선수들에게 1개월간 임상실험한결과 큰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앞으로 이 분야에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긴사나115」는 지난61년 스위스 GPL社에서 처음개발된이래 유럽스포츠계에 널리사용 되고있는 영양제로、지난해8월부터 한국파마톤社가 GPL社와의 기술제휴로 국내에서 소량생산되고있다。

스포츠과학 연구소는 국가대표선수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뉴델리아시안게임을 앞둔 지난해10월과 금년1월에 각각 한달간씩 육상 레슬링 복싱 사이클 궁도 역도등 泰陵선수촌서 훈련중인 6개종목 대표선수30명을 선정、복용시킨 결과 근력 지구력 집중력 안정성이 크게 증가되었고 달리기 폐활량 배근력도 향상된것으로 나타났다는것。육상선수 張在根과 辛明姬도 한달간 이약을 복용한 결과 기록향상도가 빨랐다고 朴承培코치가 밝혔다。

이 약은 西獨하노버대학연구소를 비롯 유럽의 권위있는 대학및 의학실험연구소로부터 효능을 인정받았다。

名人戰

第14期 挑戰者決定리그



第15局 第1譜 1~13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張秀英〈3勝0敗〉
黑(6段) 徐能旭〈2勝2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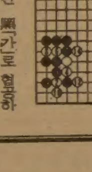
초반에 亂戰 조짐

요즘 張6단의 활약은 눈부시다。지난번 王位戰 도전대국서는 스트레이트로 지고 말았지만 이 도전권쟁탈 리그에서 徐奉洙7단에 패승한것은 고무적이었으며 또 더욱「무적황제」曹9단과 정면으로 대결한일 자체는 다른 청소년기사들에게큰자극을주었다。

名人戰서도 파죽지세로 3연승。이 바둑을 이기면 도전권을 딸 가능성이 한층 많아진다。한편 徐6단은 2패를 기록하여 시드組잔류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黑1、3의 대각선은 徐6단의 여전한 호전적포석。白6에 대해서도 보통이면 黑「가」로 협공하게 되는데、黑7로 두칸높게 협공한다。말할것도없이 변화가 많은 적극전법으로 최근 크게유행하고 있는 형이다。

白8이면 黑은 으레 10자리에 붙임을 알았는데 徐6단은 망설이지 않고 黑9로 치받더니 白10에는 11、13으로 젖혀갔다。아무래도 초반부터 난전이 벌어지고야 말것 같다。



黑7을 참고도의 黑1이면 이하17까지。日本제5기名人戰에서 坂田榮男9단이 林海峰名人에 도전할때 두번이나 시도했던 형이 된다。【一凡】

張吉山

黃晳暎 作〈1724〉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84)

그들은 옷을 벗었다。새벽의 냉기가 맨살에 와 닿았다。원향과 여환은 나란히 얼음 위로 걸었다。맨발이 떨어지는 것같았다。그들은 반석 위에서 손으로 흐르는 물을 떠서 몸을 닦았다。살갗이 찢어지는듯 하였다。그들은 서로의 어깨위에 물을 부어 주었다。떠오른 햇살에 얼음같은 물방울은 살아있는 생명처럼 반짝이며 부서져 갔다。여환은 장삼 자락으로 원향의 젖은 몸을 닦아 주고 자신도 몸을 닦았다。옷을 입고는 왔던 길을 되돌아 내려왔다。여환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차디찬 손으로 움켜쥐며 원향이 말하였다。

『우리는 이제 부부여요』

내려오는 동안에 그들의 몸은 다시 더워졌다。사선골로 돌아오니 신당 안에서는 아직도 전성달과 황회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었다。

맞이굿을 이틀 앞두고 전성달과 황회는 사선골의 빈집들을 대강 치웠고、원정사에서는 옥여가 사당맡의 거사들과 백련이를 비롯한 사람 몇을 데리고 사선골로 내려왔다。그들은 미곡 한 섬과 장을 가져왔다。정곡사에서는 가마솥이 내려왔고 아낙네들은 장정들의 도움을 받아 돌위에 솥들을 걸었다。옥여와 여환은 원향이네 옆집에 치워진 손님방에 앉아서 오랜만의 회포를 풀었다。옥여가 말하였다。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풍열스님께선 지난 가을에 오진암을 떠나 김화 천불산으로 가셨어。한양에서의 거사를 기다려 근기 일대의 사찰로 다시 옮기신다구 하셨지。나도 이번동안 거는 천불사에서 보내고 구월산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작정일세』

『미륵도의 교세는 차츰 지라나고 있네。지난번에 천불산에서 신서(神書)가 와서 모두들 다시 적어 나누어가졌지』

『신서라니……경문 말인가?』

『감결(鑑訣)이라네。선조조부터 널리 퍼져있었던 괴서일세。북가에서 볼제는 취택할 바가 없으나、우리가 역성혁명을 도모하려면 백성들께는 꼭 필요한 책이 될게야』

여환은 그러한 책이 산문에서 흘러나오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잘알았다。

『천불산에서 보냈다고는 하나 나는이책이고성(高城)의 설 선비가 적은것이라 여겨지는군』

『그럴테지。운부 큰 스님께선 그러한 세간의 참서(讖書)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니까』

하고나서 옥여가 말하였다。

『믿을 수 있다든가 없다든가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야。말세에 이르러 약하고 가난한 백성이 살아남고 탐욕스럽고 인의없는 권세가와 왕조는 멸망한다는 예언이 우리가 취할 점이거든』

그러나 여환은 웃지않고 말하였다。

『나는 저들 백성들처럼 그 사실을 굳게 믿네』

『허어、아무렴。자네야말로 양주의 산 미륵이신데……』

『여기 오던 날 새벽에 원향이 하구 나는 혼례를 올렸지』

땅끝에서오다

金成一 作　宋龍 畵　〈41〉

迷惑의 시대 ⑤

『어쨌든…당신 우리와 함께 서까지 좀 가야겠소』

『예?』

『이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소。바로 당신이 앉은 그소파에서 한사람이 살해된거야』

『예? 그럼 영실이가?』

『그 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야。피살자가 죽던 날 밤에 그여자는 집에 있었어』

『영실이가 사람을 죽여요?』

형사들은 준호의 양쪽에 서더니 그의 팔을 잡는것이었다。

『이거 노세요。제발로 갈테니까요』

『잠자코 있어!』

이제 형사들은 노골적으로 반말을 쓰고 있었다。완전히 피의자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준호는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내려다보았다。소파에는 그들의 말을 실증하듯 점점이 핏방울이 떨어져 있었다。그리고 그 아래로는…카피트 위에 커다란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몹시 많이 흘린 핏자국이었다。주의력 깊은 임준호는 그만 문 영실에 관한 상념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형사들은 그의 팔을 양쪽에서 낀 채로 한 사람은 브리프케이스를、한사람은수트케이스를 각각 들었다。그들에게 붙잡혀서 아파트의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는 다시 냉정해지려 애쓰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들의 말대로 다시 정리해보면、영실이가 있는 동안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다。그리고 이들은 연약한 영실이외에 공범이 없을까 하고 은밀하게 수사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아파트의 현장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하기위해 여기와 있었는지도 모른다。또는、범인은 반드시 한번쯤 범행의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추리소설식의 소박한 공식을 믿고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그런데 그때 준호가 나타난 것이었다。

신분을 증명할만한 아무것도 가지지않은 사내가범행의 현장을、그것도 밤 열한시에 찾아왔다。그는들어서 소파에 앉더니 자꾸만 실내를 두리번거리며 뭔가 살피고 있었다。처음에는 점잖게 이세원씨의부인 문영실씨를 찾더니 나중에는 다급하니까

『영실이가?』

하고 외쳤다。어느 회사에 다니느냐고 물으니까 이세원…그 집주인과같은 리진물산에 다닌다고하였다。이건 뭔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바로 임 준호가 연행당하게된 당연한 사유였다。그것은 너무나 그럴듯한 미혹(迷惑)이었던 것이다。

들어올때는 못보았는데 아파트앞 주차장에는 까만색 포니 한대가 서 있었다。준호의 왼쪽에 있던 형사는 그의 팔을 놓더니 운전석에 올라탔고、오른쪽의 형사는 그를 포니의 뒷좌석에다 밀어 넣었다。운전석의 형사가 시동을 걸고 있었다。그리고 차가 스르르 미끄러지며 스타트 할때쯤、준호는 포니의 라이트 속에 택시 한대가 서 있는것을 볼수 있었다。그리고 그 택시의 뒷좌석에서 검은 옷차림에 검은 안경을 쓴 사람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다가 얼른 돌아앉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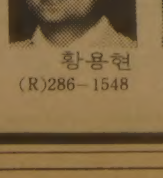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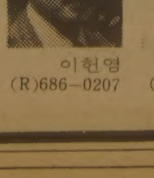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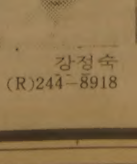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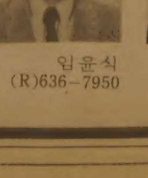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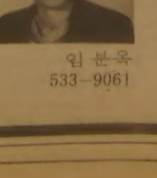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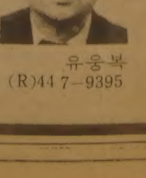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Tom Hwang Real Estate Limite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TELEPHONE 449—8644, 449—8446, 449—8645, 445—1516

금주의 새 리스팅

●버라이어티 스토어
(1)주매상: $12,000, $9,000, $6,500, $4,300, $4,000, $4,000, $3,800(임윤식)
(2)그로서리: 주매상 $14,000 asking: $200,000(이헌영)
주매상 $7,500 asking: $125,000(이헌영)
주매상 $14,000 asking: $250,000(황용현)
(3)기프트숍(Gift Shop): 연매상 $473,000 asking: $159,000
●Nut & Candy Shop
(1)Busy Shopping area에 있는, 권리금 $47,000(유웅복)
(2)Shopping Center에 있는, 권리금 $107,000(유웅복)
(3)Downtown Shopping center에 있는, 권리금 $35,000(황용현)
(4) Discount store (주6일 짧은 시간)
토론토까지 1시간거리, 연매상30만불, Asking $85,000(임윤식)
(5) Variety store, 주매상$9,600, Asking$149,000(임윤식)
Variety store, 주매상$8,000, Asking$119,000(임윤식)
●가게 꾸밀 건물
(1)주매상 $5,000 예상하는 빈가게 down $25,000(황용현)
●드라이크리닝(Dry Cleaning)
(1)주매상 $1,800 오샤와, 새로꾸밈 asking: $69,000, down: $40,000(황용현)
(2)주매상 $1,300 스카보로 아파트 밀집지역 asking: $48,000(황용현)
●Fast Food(Mall에 있는) asking: $88,000(유웅복)
●Fish & Chips(downtown shopping center에 있는)
주매상: $8,000, asking: $279,000(황용현)
▲Video Arcade(플라자내에 있는 좋은 조건), 28개 Game기계, Asking$85,000(유웅복)
●투자용 건물
(1)프라자(4개의 스토어를 가진) Asking: $525,000, down $120,000(이헌영)
(2)Chicken & Mac's가 있는 Plaza
Asking: $625,000, down: $200,000(이헌영)
(3)Laundry 가게 몰(6개의 아파트를 가진) down : $150,000(유웅복)
(4)코너 건물, asking: $89,000(유웅복)
(5)15개 스토어가 들어있는 Plaza, asking: $1,350,000(유웅복)
(6)가게 달린 집(Yonge at Aurora) asking: $136,000(유웅복)
(7)Plaza(14개 가게가 달린) asking: $1,500,000(황용현)
(8)건물 달린 가게(코너건물) 주매상 $5,000
가게: $50,000, 건물: $120,000(황용현)
(9) 교외가게 딸린 집, 주매상$6,000, Asking$154,000, Down$60,000(유웅복)
(10)플라자(10개스토어) 연순수입 $70,000, Asking$775,000(임윤식)
(11)플라자(8개스토어) 연순수입 $77,000, Asking$870,000(임윤식)

-주택상담실 설치
그동안 저희 회사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저희는 많은 분들의 요구에 의해 주택상담실을 설치하였읍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파실 계획이시거나 새 주택을 마련코저 하시는 분들께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관한 상담에 기꺼이 응하고저 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좋은 조건의 모게지 알선
(2)가옥의 가치 평가
(3)가옥의 구조변경에 관한 문의
(4)가옥의 투자 상담
(5)가옥 구입시 필요한 제반 지식 제공


황용현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임윤식 (R)636—7950

임분옥 533—9061

유웅복 (R)447—9395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컴퓨터 식자 서비스
컴퓨터 식자기를 이용하여
책을 만드실 분 문의 바랍니다. ☎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 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안 경 점

블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회삼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합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중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 철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의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경실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 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아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24세 미만 가게에서 일할분 구함.
유경험자 환영, 남녀 불문
전화 : 691-3666 Mr. 리

스토어 헬퍼구함.
풀타임 (주 40시간)
전화 : 741-1465, 밤10시이후 242-2630.

지렁이 잡으실 분
좋은 농장 준비돼있음.(다운타운)
전화 : 533-7759

"거구장"
경험있는 요리사와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전화 : 742-1618.

새 장비를 갖춘 버라이어티상점
메니져 구함.(월수입 3,000불 보장. 약간 보증금요)
전화 : 1-727-6665 (AURORA)

입주하셔서 아이들 봐주실분 구함.
전화 : 741-9443 Mr. 박
(7시이후 연락요망)

Korean Village Restaurant
주방 남자헬퍼 1명, 여자헬퍼 1명구함
628 Bloor St. W. Tor. 전화 : 536-0290.

강찬영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실 리셉셔니스트구함.
영어, 국어를 잘 하시고 영문타이핑을 할수 있는 분.
전화 : 961-2417. Mrs. 최

Fast Food 주방헬퍼와 파타임 카운터학생 구함
(경험자 원함)
전화 : 438-0921 Mrs.유(오후3시이후 전화요망)

책임있는 가게 풀타임 헬퍼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 B)438-6440, R)284-8862

샌드위치 커피숍에서 일하실 분 구함.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유경험자 원함.
직접 내방바람. (오후 3시~5시30분까지)(월~금)
55 University Ave. Mrs. 한. 전화 : 368-7662(B)

입주하셔서 남자아여 둘(세살, 일곱살) 돌바주실 아주머니 구합니다. Victoria Pk×Eglington. E.
전화 : 752-1467(낮 12시이후)

일본요리사, 웨이트레스 급구.
Nam Kang Restaurant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5 일에 $ 15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여 권 분 실

정일원(Jung Il-Won)
1128644(여권 No.) 1948년 11월20일 방문여권
4월15일 3PM Eglinton Laird지역분실. 전화: 421-1089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개 인 지 도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송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매 매

버라이어티 가게 매매
주매상: $7,000. 아스킹: $90.000
전화 : 497-9180(오후8시~10시)

맥스 프랜차이스 매매
오샤와 지역
전화: 1-723-8632

가게달린 집건물을 매매, 혹은 리스코저함.
아스킹 19만불, 7만불 다운.
전화 : 266-7958.

오타와 중심가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타사업 관계로 급매. 주매상 : $7,000
렌트 : $650 전화 : 1-613-238-3837

가게 사실분 또는 매니저 구함.
해밀톤 지역서 성업중.
전화 : 1-560-6400 Mr. 정

Fruit Store(과일가게) Sacrificed Price
Plaza안에 있고 좋은 Turnover
전화 : 745-2300 Jim Taylor, Re-Max West Realty inc.

보석및 선물가게 매매
비즈네스가 잘되는 시계및 보석취급으로 오래전에 세워진 가게임. 전화 : 531-4486(낮), 635-0511(저녁)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5,000.
렌트 : $700. 리스: 6년+10년 옵션
전화 : 1-388-4825(해밀톤)

집과 가게건물을 함께 매매, 혹은 리스코저함.
아스킹 19만불, 7만불 다운.
전화 : 266-7958.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주매상 6,000불, 리스5년($650/M)+5년($780/M). 현재 월 Rent $580. Plaza안에 있음.
지역. Hamilton 전화 : 1-528-3986 Mr.리 1-389-7755 Mr.차

햄버거숍 다운타운 주 $5,000
8개월 남은 리스 인수받으실분
568 Yonge St. 전화 : B)921-2941 R)677-3537

도나스 숍 매매. 주 $5,500
Bathurst & 580 Queen St. W.
전화 : 368-2100

매우 바쁜 신발수선가게 매매.
Asking $9만. 전화 : 826-4355.

그로서리가게 매매. 해밀톤시내
건물 포함.
전화 : 1-523-5885

배더스트 & 윌슨 지역 HOUSE 매매 (새한장로교회 근처)
Asking Price: $156,900 4 Bed Rm. 2층집
Rose Hersh Ltd. 전화: 633-7777 Mrs. Jacobaso

도너스가게 매매.
주매상 $3,600. 아스킹 $145,000(St. Clair & Midland)
전화 : 421-6964. John or Peter.

오픈한지 1주일된 Store 매매.
아스킹$19,500. 오샤와지역.
전화 : 1-623-4557.

Show Case 4ft & 6ft(기타 여러종류)
Magazine Rack 급매.
전화 : 757-8323, 759-6445 Divid

햄버거숍. 다운타운(568 Yonge St.) 주매상: $5,000
8개월만 남은 리스 인수받으실분
전화: (B)921-2941, (R)677-3537.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전화 : 844-1583

새로운 각종 비데오게임 매매.
이익은 50%씩 나눔. 좋은 Terms.
전화 : 247-3713

Town Houese 매매(좋은 가격) · 매매.
Jane & Sheppard지역
전화 : 743-3377 Mr. Eastman

비데오 핀볼 아케이드 매매
짧은 시간, 좋은 수입, 옥빌지역
전화 : 842-6195

이전관계로 좋은 조건으로 급매.
3 Bed Room. 콘도미니움 타운하우스.
전화 : 493-0615 Mrs. 안(6시반이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렌트-피커링 5에이커 땅(401로부터 3분), 3 Bed Rm.과 (20×50) 창고. 가내공업과 건축업자에 적합. 전화 : 292-3709 Mr. or Mrs.윤(6시 이후)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홍소

팔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렌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웨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손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
전화: 532-7094(B) 248-2437(R)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하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88-244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휘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 김

한인민족상 기금모금

모국연예인 초청 쇼

□일자 : 5월13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 : 토론토대학교
CONVOCATION HALL

(칼리지×세인트・죠지 Kings College Cir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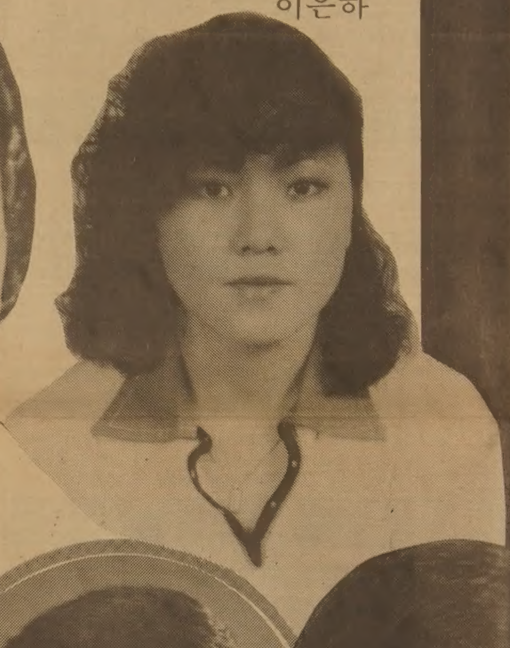
(약도참조) 콘보케이션 홀

A석 $15 / B석 $12 / C석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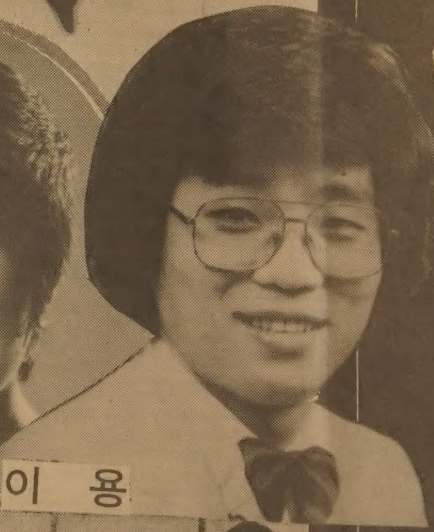
시내 각 식품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한국 최고의 코메디안
"무언가를 보여 주겠읍니다"
"못 생겨서 미안합니다" 이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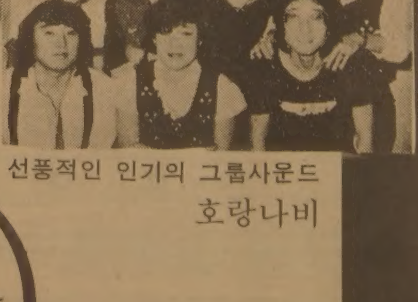
그래머 가수
"네가 좋아"
이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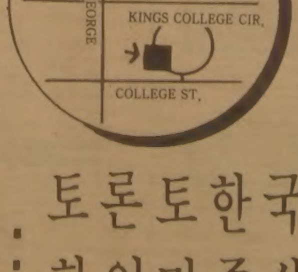
"진정인가요?"
메들리의 여왕
김연자



이 용



선풍적인 인기의 그룹사운드
호랑나비



주최: 토론토한국일보사
한인민족상위원회